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6. 1 + 2 vol. 137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 뜨고 지는 해지만, 새해 아침 해는 유난히 환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시작하는 한 해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설렘이 담겨있기 때문일까요?

늘 밝게 빛나는 해처럼, 여러분의 2016년도 언제나 밝고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BRIGHT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멀리 바라보고 꾸준히 걸어 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현
김 경 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해를 맞아 힘차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빌었습니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에서는 지난 해에 이은 연간 스페셜 테마의 마지막 이야기로 '고관절치환술'에 대해 다뤘습니다. 고관절은 골반을 통해 전달되는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양한 우리 몸의 운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용량이 많다보니 다양한 외부적 요인과 자체 노화 등에 의해 많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관절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늘날 우리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공 관절

을 통한 고관절치환술입니다. 인공 고관절 수술은 그 임상적 결과가 10년 성공률이 95% 이상에 이를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술 이후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재활치료를 병행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안정적인 일상 생활로 복귀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곤 합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모든 계획에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한 걸음 내딛는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하게 성공하려는 마음 대신, 멀리 바라보며 꾸준히 원하시는 바를 추구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다다른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 모든 계획 이루실 수 있도록 올해도 한양대학교의료원이 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VOL. 137 | 2016 | 1+2

한양대학교의료원

SPECIAL THEME

수술 잘 하는 병원 ⑥ 고관절치환술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6년 1+2월호에서 '수술 잘 하는 병원' 여섯 번째 시리즈로 고관절치환술을 다룹니다. 고관절은 신체에서 가장 크고 두 번째로 운동 범위가 큰 관절입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보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관절 질환과 함께, 이것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의료적인 노력을 소개해드립니다.



02 **즐거운 편지** | 멀리 바라보고 꾸준히 걸어 가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08 **Love, Life** |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개교 10주년 기념식

SPECIAL THEME

수술 잘 하는 병원 ⑥ 고관절치환술

12 류마티스 질환, 소리없이 고관절을 침범하다 | ① 류마티스내과

14 인공 고관절 수술, 고관절 질환의 내일을 밝히다 | ② 정형외과

16 적절한 재활치료, 수술의 효과를 이어가다 | ③ 재활의학과



18 **Hanyang Topic**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

22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신민아의 비만

24 **베스트 파트너** | 남양주 양병원

26 **Dr. Opera** | 리하르트 바그너 4부작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중 제1부

28 **Dr. Movie** | 행복을 쟁취하거나 어려운 관계를 맺거나

30 **예술과 의학의 만남** | 프란시스코 고야 & 청각장애

32 **고마운 당신에게** | 이창범 내분비내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34 **Hanyang News** |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4회 연속 1등급 외

37 **언론 속 한양인**

38 **발전기금**

42 **한양캘린더**

43 **외래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6년 1월 1일 통권 137호 **발행인** 김경현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www.hyumc.com **기획** 대외홍보팀 02-2290-9532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



피부가 웃어야 얼굴이 웃고 환자가 웃어야 의사가 웃습니다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여드름 피부 세안법’, ‘뽀루지 응급처방’, ‘악건성 피부 보습에 좋은 모이스처라이저’ 등등, 한 포털사이트 지식인을 보니 피부 관련 질문들이 넘쳐난다. 그만큼 피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하는 것일 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고주연 피부과 교수는 피부 건강을 되찾아 환자들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주는 피부웃음전도사다. 피부가 웃어야 비로소 얼굴이 웃는 거라고 그녀는 말한다.

글. 임지영 사진. 김재이



“본과로 진학해 병원을 돌고 직접 환자들을 만나면서 더욱 재미있어졌어요. 크든 작든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잖아요? 갈 길을 제대로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전공을 피부과로 정한 것은 그녀가 피부에 관심이 많은 여자라서가 아닌, 피부야말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라고 생각해서다.

“피부는 건강면에서나 미용면에서나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부위인 만큼 누구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질환이나 콤플렉스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요.”

피부는 건강, 영양, 노화상태를 일러주는 바로미터

피를 말리거나 분초를 닦는 응급 환자가 없는 대신, 눈에 보이는 트러블로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환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은 피부과 전문의의 최대 고민이다. 빠른 시기에 눈에 띄게 좋은 효과를 본 환자는 그만큼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낙담하거나 화를 내기 십상이다. 말하자면 의사에게 피부과질환 진료와 치료는 ‘감정 노동’이 수반되는 과정이다.

“빠른 경과에 만족하시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보며 치료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인내심을 잃고 감정이 폭발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니까요. 그 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흉터나 상처는 치료하면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환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까지 해소해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르면 좀 더 쉽게 나을 것을, 조금한 마음에 상처나 질환 부위를 건드리다가 환부를 더 키우기도 한다. 개인병원은 점이나 기미를 없애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대학병원인 만큼 보다 심각한 질환으로 찾는 환자들이 많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로서 자부심과 보람도 느끼지만, 가끔 인내심을 잃고 돌발행동을 하거나 내원을 중단하는 환자를 경험하게 되면 의사로서 솔직히 속이 상하는 건 사실이다.

“물집질환같은 자가면역계 이상으로 인한 피부질환은 아무리 국소 부위라 할지라도 장기치료를 요하는 게 사실이에요. 독한 치료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거나 내원빈도에 비해 가시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중도포기하신 환자가 있었어요. 한의원도 가보고 산속에 들어가 민간요법을 쓰기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상태가 더 악화되어 다시 병원을 찾으셨어요.”

어릴 적 슈바이처 위인전에서 찾은 숙명

“안녕하세요? 병원 오시는데 출진 않으셨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환자를 맞는 고주연 피부과 교수에게는 보는 이들에게까지 활기를 전염시킬 것 같은 특유의 ‘에너지업’ DNA가 있다. 상처 재생과 레이저 치료에 있어서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로 꼽히고, 미래의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배울 점이 많은 선배이자 스승으로 인식된다.

고주연 피부과 교수는 KBS <비타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BS <뉴스> 등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스타 닥터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는 KBS <비타민>에 출연한 아이돌 그룹 EXID의 하니에게 얼굴 부위 별로 ‘두 개의 비누를 사용하라’는 피부 관리 비법을 전수해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관심의 영역이 폭넓었던 그녀는 어린시절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글을 쓰던 아이였다. 인물전, 위인전을 즐겨 읽던 그녀에게 유독 와 ‘꽃헌’ 것은 <슈바이처>였다. 책으로 읽고 감동을 느낀 슈바이처 박사의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무렵, 그녀의 관심은 온통 개발과 엔지니어링에 쏠려 있었다. 남다른 도전, 실험정신에 잠시 함몰되어 공대에 진학했다 1년 만에 방향을 선회한 데에는 ‘조금 늦더라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크게 작용했다.

다시 시험을 치뤄 의대에 진학한 그녀는 비로소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어릴 적 <슈바이처>를 읽으면서 어렵 뜻이 느낀 숙명을 본과에 들어서면서 깨달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 래서인지 예과보다 본과에서 더욱 공부를 잘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차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누렸다.



피부과질환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고주연 교수는 늘 강

“피부 관리법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수분과 자외선 차단.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흐린 날이더라도 모이스처라이저와 자외선 차단제는 꼭 잊지 마세요.”

어렵사리 다시 병원에 발걸음을 한 그 환자에게, 고 교수는 처음과 똑같이 ‘인내’를 강조했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 것. 그 대신 의사를 믿고 따라주면 분명 거울을 보며 웃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이다.

십 년 만에 물집질환을 치료한 그 환자가 이제는 딸과 함께 그녀를 찾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른 세월의 무게만큼, 그리고 조용히 지켜진 약속만큼 어느덧 탄탄한 신뢰가 쌓인 것이다.

“일 년이면 만 명이 넘는 환자를 봐요. 그 중에는 물집질환이나 루푸스처럼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도 상당수 있지요. 아마 저만큼 많은 물집질환, 루푸스 환자를 치료해본 의사도 많지 않을 거예요. 성급한 개선효과에 집착한 나머지 속 끓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릴 뿐, 피부 질환은 언젠가는 치료가 되는 병이니까요.”

웃음 찾은 환자들야말로 가장 큰 에너지의 원천

그녀는 피부 또한 이해와 소통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되고, 상태를 이해 못하면 나빠진다. 피부는 체내건강과 노화 정도까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에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피부 관리법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수분과 자외선 차단.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흐린 날이더라도 모이스처라이저와 자외선 차단제는 꼭 잊지 마세요. 모이스처라이저는 피부가 축축해질 정도로 듬뿍, 자외선 차단제는 진정된 차단 효과를 위해 자주 덧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은근히 어려운 팁. 어쩌면 우리는 너무 적은 모이스처라이저와 단 한 번의 자외선 차단제로 그동안 엉터리 피부 관리를 해왔는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 더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당연히 피부에도 적 이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면 금상첨화고요. 건강한 피부를 지키려면 뭐니 뭐니 해도 즐겁게 사는 게 최고예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바쁜 일정 속에서 가끔 시간을 훔쳐 즐기곤 하는 운동과 영화는 그녀에게 숨 쉴 틈을 허락하는 유일한 취미이자 오아시스다. 최근에는 영화 <암살>과 <사도>를 극장에서 봤다. 암실에서 가진 두 시간여의 휴식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여가를 즐길 여유가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은 연구에 몰두하려고 해요. 레이저기기를 만드는 회사와 현재 함께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논문이 뽕뽕처럼 밀려있는 상태죠 (웃음). 부지런히 논문을 써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지금은 시간이 더 주어진다 해도 하고 싶은 일이 없네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해외 연수는 고 교수에게 새로운 도전 플랫폼이다. 공부도 맘껏 하고 싶고 이 참에 글로벌 인맥도 쌓아 앞으로 국내 의료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픈 생각이다.

“피부병리를 더 연구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치료 수준은 이미 세계 정상급에 도달해 있어요. 문제는 진단이에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하는데, 조직 검사를 얼마나 잘 판독하느냐가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피부병리와 함께 우리병원의 강점인 류마티스 관련 피부질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볼 생각이에요.”

환자가 좋으면 의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천상 의사 고주연 교수. 올상으로 대기실에 앉았다가 환한 얼굴로 진료실을 나가는 환자의 웃음꽃은 오늘도 그녀를 웃게 하는 엔도르핀이자 힘찬 발걸음으로 병원 곳곳을 누비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 🌟

희망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억하다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개교 10주년 기념식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조금은 흐린 날씨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 2005년 11월 25일 첫 시작을 알린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가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이했다. 아이들에게 희망의 의미를 전해준 10년의 세월은 병원학교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병원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황원희 사진. 이승현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개교 10주년 기념식 현장



따뜻한 시작을 기억하다

반가운 첫눈과 함께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이하 병원학교) 개교 10주년 기념식이 지난 11월 26일 한양대학교병원 동문회관 5층 중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병원 치료와 병원학교 수업을 병행한 학생들은 물론 그들을 지켜보며 응원해준 가족들, 수업을 이끌어준 선생님들 그리고 병원학교의 시작을 지지해준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한준호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병원학교 개교 10주년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병원학교 교장인 이영호 교수가 병원학교를 대표해 인사말을 전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병원학교 개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지금의 병원학교가 있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한상로 교육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 매 수업마다 열정을 쏟아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원학교를 이끌어준 모두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묻어나는 순간이었다. 어느덧 훌쩍 자라 10살이 된 병원학교는 학생들이 잠깐 머물다 떠나는 임시 학교가 아닌 실질적인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병원학교는 백혈병 및 소아암과 같이 장기치료를 받는 학생들이 병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가고, 완치 후에는 학교로 복귀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2005년 11월 25일 설립됐다. 눈여겨볼 점은 수도권 최초로 교육청인가를 받아 병원학교 수업으로 실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어 완치 후 학교로 복귀했을 때 공백 없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불가능을 기능으로 만들기까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병원학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의 출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건강장애학생에 관한 내규를 만들었다. 초등학교생은 1일 1시간, 중·고등학교생은 1일 2시간 이상의 병원학교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정성을 쏟은 결과 마침내 병원학교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의 가치관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만나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이 창조된 것이다.

고마움이 작은 위로가 되는 공간

“한양대학교병원은 치료와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복귀를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광현 한양대학교병원장의 한 마디가 병원학교를 움직이는 모든



1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는 병원학교 학생과 교사들

이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든다. 삶의 소중함을 배워가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건강한 어린이, 긍정적인 어린이, 꿈을 키우는 어린이’를 교훈으로 삼아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며 무럭무럭 성장한다.

병원학교라는 큰 틀 안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교사들 역시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한다. 병원학교 교장인 이영호 교수를 주축으로 강혜령 교무부장 그리고 8명의 현직 교사와 35명의 대학생 교사, 각 분야의 특별활동 교사와 명예 교사까지 다양한 장르의 선생님들은 병원학교라는 큰 나무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

병원학교가 설립되기 전부터 학생들과 1:1 수업을 시작한 한양대학교 학생중앙동아리 ‘한양어린이학교’의 대학생 교사들은 교육 봉사를 통해 아이들과 교감하며 그 누구보다도 친구 같은 선생님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병원학교 10주년 기념식에서도 한양어린이학교의 창립멤버였던 이영란 교사가 병원학교 10년의 역사를 소개하며 지난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10년 전, 따뜻했던 봄날 처음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10주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20주년, 30주년 그리고 그 이상을 기념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 졸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병원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이는 병원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병이 완치된 후 일반학교로 복귀해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기뻐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 병원학교 졸업 후 일반학교에 복귀해 잘 적응한 류국민 학생도 그 중 한 명이다.

“소아암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에만 집중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병원학교를 알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찾았어요. 병원학교를 통해 정식 수업을 받고 완치 후에는 일반 학교에 복귀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갔거든요. 덕분에 무사히 졸업도 했어요. 병원학교가 없었다면 지금의 삶은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해요.”

병원학교는 정규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신선한 활력을 제공한다. 미술치료, 책놀이 교실, 한바탕 웃음 교실, 우쿨렐레 교실, 요리 교실, 박물관 교실, 음악치료 교실, 클레이 교실 등의 특활 수업과 봄 소풍, 여름·겨울캠프 등의 바깥 활동은 힘든 병원 치료에 지친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

병원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긴 세월 동안 힘들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레 생겨난 고마움이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들도 고마움은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희망을 간직한 병원학교

병원학교의 이야기로 채워진 개교 10주년 기념식이 끝나갈 무렵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의 특강이 시작되었다. 선수로 활동한 지난 20년간 길에서 배운 깨달음을 전하며 항암치료를 받는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담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로는 병원학교를 위해 노력해준 현직 교사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병원학교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양초등학교 김두성 교사를 비롯 총 6곳에 순금으로 제작된 감사패를 전달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스크린에 한양어린이학교 대학생 교사들이 준비한 영상이 나오자 객석의 반응이 뜨거워졌다. 영상 속에서 환아들은 돌아가면서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모두의 얼굴에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한양대학교병원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만남으로 시작된 병원학교는 희망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들과 희망을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희망을 기억하는 모두의 합심으로 더욱 단단해진다. 앞으로의 100년, 그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듬어 갈 병원학교의 미래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병원학교 10주년 행사에 축하공연을 준비한 병원학교 교사들



병원학교에서 진행됐던 장기치료 학생의 생일잔치

Mini Interview



이영호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병원학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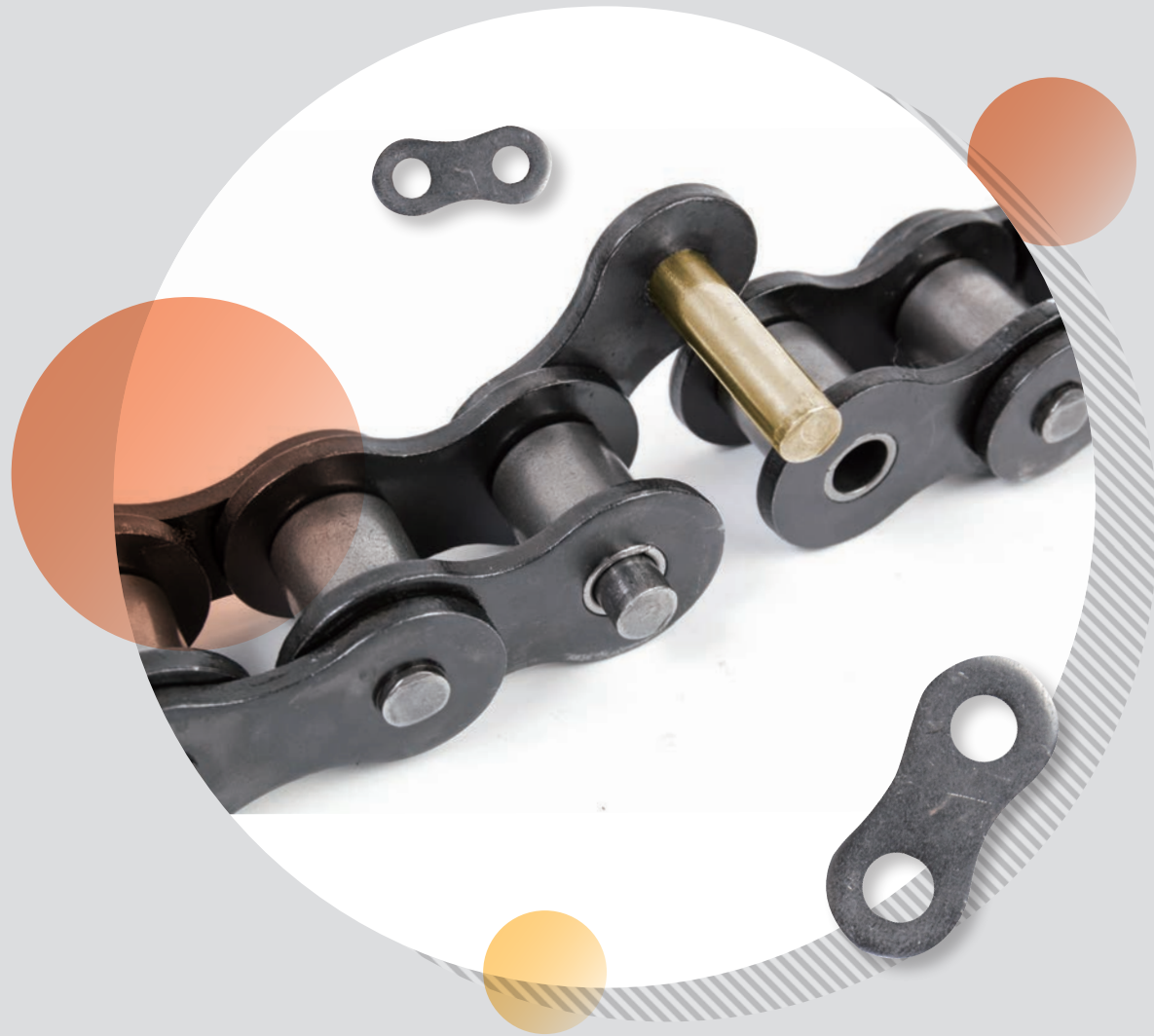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는 수도권 최초로 교육청인가를 받은 학교로 장기치료를 받는 학생들이 병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고, 완치 후에는 학교로 복귀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깨끗하게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병원학교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 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황준섭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졸업생

“2013년도에 희귀난치성 질환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 발 병되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병원학교를 알게 되 었고 올해 치료가 끝나면서 졸업을 하게 되었죠. 병원이 아픈 병 을 치료해주는 곳이라면 병원학교는 마음을 치유해 주는 공간이 에요.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병원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에게 조금만 견뎌내면 더 좋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류마티스 질환, 소리없이 고관절을 침범하다



고관절은 골반골과 대퇴골을 연결하는 관절을 말한다. 신체에서 가장 큰 관절이자 견관절에 이어 두 번째로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이기도 하다. 체중의 3~5배에 이르는 하중을 견디며 다른 관절과 달리 70년 이상 기능적인 관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경로로 인해 통증이 생기거나 파괴될 수도 있다. 고관절의 통증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류마티스 질환이 판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
류마티스 질환은 고관절의 통증과
운동장애를 주 증상으로 하더라도
전신 관절의 침범이나 관절 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

글. 조수경 교수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류마티스 질환의 판별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모두 철저하고 체계적인 진찰과 영상진단을 통해 진단을 받는다. 관절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 중에는 류마티스 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류마티스 질환은 고관절의 통증과 운동장애를 주 증상으로 하더라도 전신 관절의 침범이나 관절 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국소적인 영상 검사 이외에도 자세한 병력 청취가 필요하며, 대개의 경우 혈액 내에 염증 소견이나 기저 질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표지자가 검출될 수 있어 검사실 검사도 매우 중요하다.

고관절에 생기는 주요 질환과 증상

고관절은 몸 속 깊숙이 위치하므로 눈으로 이상소견을 관찰하기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걷는 모양, 주변 근육, 고관절의 운동 양상 등을 통해서 질병을 확인하게 된다.

고관절 염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은 주로 서혜부(사타구니)나 둔부(엉덩이) 쪽에서 나타나고, 대퇴부(허벅지) 앞쪽 안쪽으로 통증이 전이되기도 한다. 고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지고 오래되면 보행 시 몸이 기울어지는 모양을 보일 수 있다.

고관절에 나타나는 류마티스 질환

고관절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류마티스 질환으로는 류마티스관절염이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주로 손, 손목, 발과 같은 작은 관절들에서 증상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만성 관절염 중 하나이다.

천장관절과 척추를 주로 침범하는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역시 고관절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 약 25~33%의 환자가 이로 인

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양한 전신 증상을 보이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에서도 관절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자가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고관절염 이외에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같은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뼈에 영양소를 제공하는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면서 대퇴골두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그 원인으로는 각종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스테로이드)의 영향,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제시되지만, 루푸스 질환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게서 고관절 통증이 발생했을 시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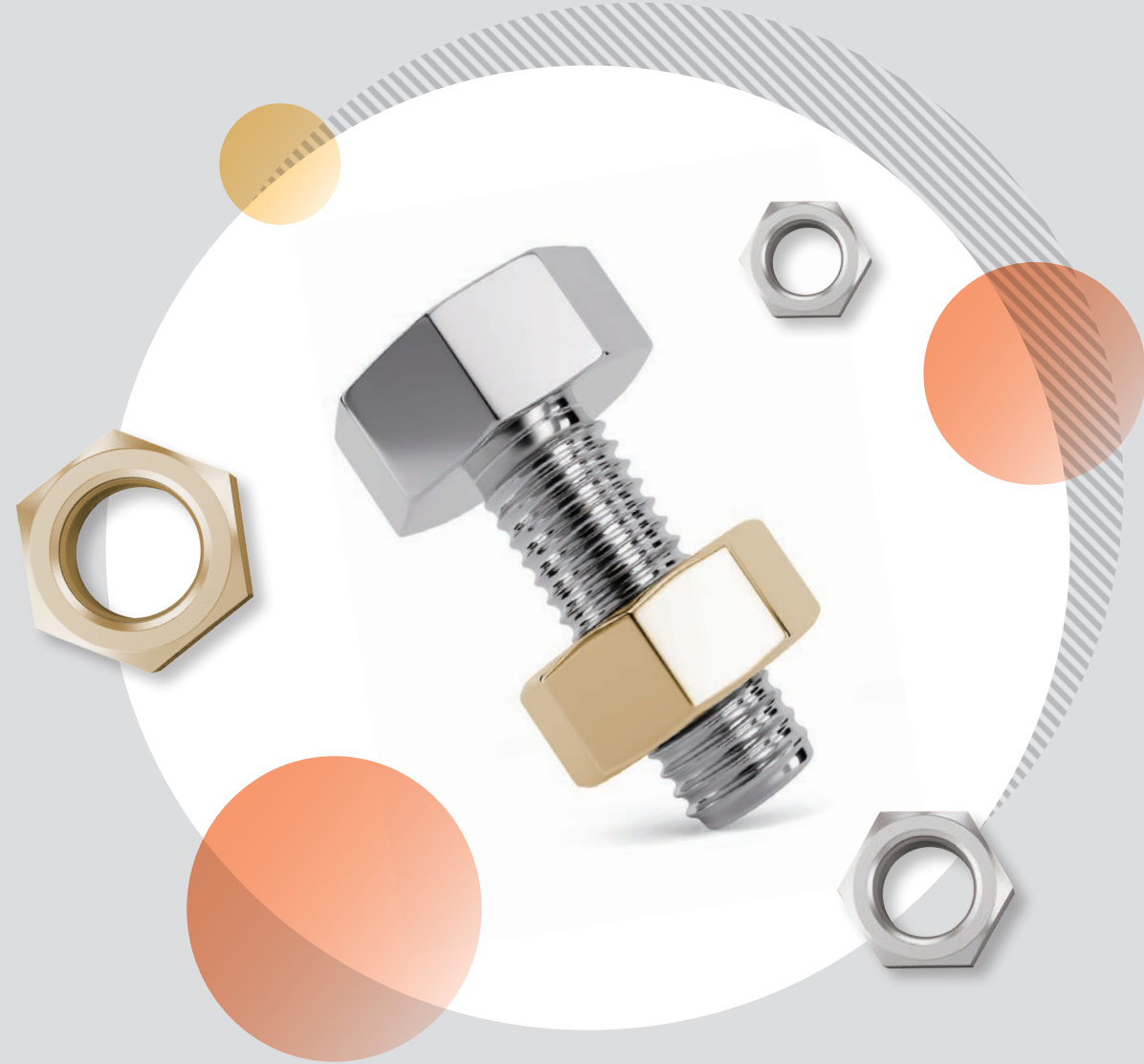
가장 흔한 형태의 관절염은 골관절염이다. 골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또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의 표면에 존재하는 연골이 약해지고, 닳아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과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손, 무릎 관절에 증상이 생기지만, 우리 몸을 지지하고, 걷거나 뛸 때 사용되는 고관절에도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약물 치료로 통증과 장애 억제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서 동반되는 고관절염의 치료는 통증 조절과 장애 발생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단된 류마티스 질환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와 함께, 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질병의 상태와 치료 반응에 따라서 물리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와 협력하여 진료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인공 고관절 수술, 고관절 질환의 내일을 밝히다



영국의 정형외과 의사 Ian Learmonth는 <Lancet>이라는 잡지에서 인공 고관절 수술은 20세기를 빛나게 한 수술이라고 언급했다. 고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혁명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인공 고관절 수술은 노인의 보행을 가능하게 하여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젊은 환자엔 삶의 질을 높여 직업으로의 복귀율을 높아지게 했다.

“오늘날 인공 고관절 재료의 발전과 더불어 수술의 임상적 결과 역시 10년 성공율이 95% 이상에 이르는 등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글. 김이석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고관절의 위치와 통증

골반골과 대퇴골을 연결하는 관절인 고관절은 신체에서 가장 크고 안정된 볼-소켓 형 관절로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구형의 대퇴골두와 컵 모양의 비구가 맞닿아 있고, 골성 구조물에 의해 다른 관절보다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안정성을 보강해주는 고관절은 신체에서 체중 부하와 전달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관절인 고관절에 질병이나 골절이 발생하면 심한 통증과 더불어 정상적인 관절운동과 보행 등의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고관절을 이루는 구조물에 손상이 생기면, 초기 증상으로 서혜부나 둔부, 대퇴부 등 고관절 주변에 통증이 발생한다. 통증은 주로 걷거나 움직일 때 느껴지는데, 간혹 같은 쪽 무릎 주변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병이 더 진행되면 걸을 때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다. 대퇴골두의 손상이 심하거나 여러 원인에 의해 고관절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 쪽 다리가 반대편 다리보다 짧아질 수도 있다. 통증이 있다고 모두 고관절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담당 의사의 진찰과 검사 결과에 의해 시행을 결정해야 한다.

인공 고관절 수술과 종류

과거에는 관절 유합술과 같이 관절을 고정시키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척추나 슬관절의 관절염 발생 위험이 높았고, 고관절 고정으로 인해 심한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손상받은 고관절을 인공 삽입물로 대체하여 정상적인 관절 운동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공 고관절은 비구측 삽입물과 대퇴골측 삽입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삽입물의 관절면을 이루는 재질에 따라 금속-폴리에틸렌, 금속-금속,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으로 구별된다. 과거에는 주로 금속-폴리에틸렌 재료의 관절면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폴리에틸렌의 마모와 그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에는 폴리에틸렌의 강도를 강화한 강화폴리에틸렌이나 세라믹 재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강화폴리에틸렌은 기존 폴리에틸렌의 마모율을 10분의 1 이상 줄인 재료로, 낮은 마모율과 생체 안정성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세라믹 재료는 기존 인공 관절의 문제점인 마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재질로서 높은 압축강도, 화학적 안정성, 무독성, 생체 적합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공 고관절 수술 후 관리

인공 고관절 수술은 높은 성공율 만큼이나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 수술 후에는 고관절의 위치 제한으로 수술 시 손상으로 인한 연부 조직의 회복을 도와 탈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 누워 있을 때는 베개를 환자의 무릎 사이에 놓고, 고관절을 90° 이상 꺾거나, 다리가 몸의 중심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술 부위에 체중을 싣는 체중 부하 시기는 의사들에 따라 논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술 후 1개월 이후에는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 기구의 파손과 과도한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락의자, 흔들의자, 낮은 의자에 앉는 것을 피하고, 수술한 다리는 90° 이상 들어올리지 않도록 하며, 바닥에 쪼그려 앉는 등의 과도한 고관절 굴곡을 유발하는 자세는 취하지 않도록 한다.

인공 고관절의 미래

고관절은 우리 몸의 관절 수술 중 가장 우수한 치료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부위로, 고관절학은 오래 전부터 발달해 왔다. 또한 인공 관절 분야 역시 의학과 재료 공학의 발전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다. 오늘날 인공 고관절 재료의 발전과 더불어 수술의 임상적 결과 역시 10년 성공율이 95% 이상에 이르는 등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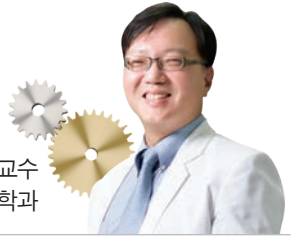
하지만 아직 과제 역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술 이후의 탈구, 관절의 마모, 기구의 파손 등의 미해결 문제는 앞으로의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적절한 재활치료, 수술의 효과를 이어가다



고관절치환술을 받을 정도의 환자라면 많은 고통과 고민 끝에 수술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어려운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술 이후의 적절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날짜는 3일 이후로 빠를수록 좋으나, 이를 위해 이동하는 동작이 탈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재활치료에서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퇴원 이후에도 탈구의 위험은 상존하기 때문에, 재활치료의 주된 목적은 탈구를 방지하기 위한 근육 강화와 자세 교육에 집중된다.



글. 장성호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첫 번째 목표, 부작용의 최소화

재활치료에서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부작용 중의 하나인 인공관절의 탈구는 재활치료 기간 중 약 2%의 확률로 발생한다. 보통 후방으로 탈구하게 되며, 도수 정복(손으로 뼈를 맞추는 것)을 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환자의 나이, 근력, 균형감각, 수술 종류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술의사와 재활팀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퇴원 이후에도 탈구의 위험은 상존하기 때문에, 재활치료의 주된 목적은 탈구를 방지하기 위한 근육 강화와 자세 교육에 집중된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 약 1/3 정도의 환자에서 치환술 후 양측 다리길이에 차이가 나는 것이 발견되곤 한다. 이럴 경우에는 보행을 분석해 실제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적절한 운동처방이나 신발교정을 통한 치료를 하게 된다. 그밖에도 침상 안정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하지심부혈전증과 이로 인한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예방을 위한 압박스타킹, 마사지 치료, 혹은 약물치료 등이 선별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두 번째 목표, 보행과 이동 기능의 향상

재활치료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보행과 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관절과 슬관절의 근력을 강화해야 하며, 탈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관절의 관절 가동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동과 보행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혈체어, 혹은 워커 등을 이용한 이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기 재활치료는 자세교육과 근육 강화에 집중된다.

자세교육 시에는 일반적으로 고관절을 굴곡, 내전, 내회전시키는 자세가 탈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 수술 초기에는 수면 중에 몸을 꼬는 동작만으로도 탈구가 될 수 있으므로, 외전 베개 등을 이용하여 고관절이 굴곡, 내전되는 것을 방지한다. 근육 강화는 탈구 자세의 길항근을 주로 강화하게 된다. 즉 고관절의 외전근에 대한 등장성 운동을 시작으로 고관절 신전근을 엮드린 상태로 강화하는 운동이 시행된다.

재활을 방해하는 일상 속 주의 동작

수술 이후에는 고관절이 굴곡구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너무 폭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하거나, 무릎 아래에 베개를 베거나 하는 동작은 좋지 않다. 고관절을 신전시키기 위한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적절한 재활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이 가능해진 이후에 이상보행이 나타날 수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 걷는 경우 고관절 외전근력이 약한 경우가 많으며, 한발로 서기를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관절 굴곡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로 뒤로걸기를 시행하는 것도 좋다.

올바른 자세는 굴곡과 내전, 내회전을 피해야 하는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동작, 몸을 옆으로 비트는 동작, 몸을 숙여 구두끈을 매는 동작, 재래식 변기에 앉는 것과 같이 흔한 일상생활 동작도 탈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뒷 계단을 밟는 다리 고관절의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를 때에는 건측 발을 먼저 올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환측 발을 먼저 내려서 항상 건측 발이 위쪽 위치에 있도록 한다. 



우리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내시경 하나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

아직 ‘센터’나 ‘클리닉’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큰 규모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당당하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 내시경실 인증 평가 1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그저 ‘재’인증을 받은 것뿐이라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이미 분야의 최고이기에 외부의 다른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신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에서 그 진가를 찾았다.

글. 박여민 사진. 이승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시경 검사와
기술이 가능한 곳입니다.”



진단에서 치료까지, 내시경으로 한 번에

한국인의 질병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단연 암이다. 그 중에서도 위암은 남성 암 1위, 사망률은 폐암과 간암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위암은 초기 발견 시 생존률이 95%에 달하지만,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초기 발견이 어렵다.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이유다. 오늘날 내시경은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관의 검사 방법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40대 이상에게 위 내시경, 50대 이상에게 대장암 검사(대변잠혈반응검사)를 의무 검진으로 지정하고 있다. 내시경을 통해 초기 암을 비롯, 숨어있던 다양한 질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목적에 맞추어 개발된 특수 내시경은 초기 암이나 종양, 소화관의 출혈 및 천공 등의 분야에서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는 초창기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최소 침습의 개념으로 환자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이끌어내는 유용한 도구로 그 장점을 인정받고 있다.

“가령,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위에서 혹을 발견했어요. 내시경을 이용해 이것을 떼어내어 조직검사를 해보니 암이었던 거죠. 결국 초기 암을 발견, 진단한 것인데 이미 종양을 떼어냈기 때문에 그대로 치료가 된 것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개복수술까지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시경 수술을 통해 간단하고 무엇보다도 환자의 고통은 적으면서도 완치가 가능해진 것이지요.”

은창수 소화기내과 교수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내시경 활용의 범위를 이야기하며 무엇보다 ‘환자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국 내시경실의 진화는 환자의 질 높은 진료와 편의에 곧장 연결된다는 것이다.

내시경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편안하고 안전한 최적의 내시경실’이라는 목표 아래 최신의 기기와 기술로 환자들을 맞이하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의 입구는 늘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멀리 가평과 춘천 지역에서 찾아온 주민들은 물론, 인근 종합병원에서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곳 내시경실을 찾는다.

“최신 기기 보유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화질이 선명하고 민감해서 장기의 아주 작은 이상까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많은 최신 기법을 활용한 기술도 가능하구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시경 검사와 기술이 가능한 곳입니다.”

유교상 소화기내과 교수는 무엇보다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의료진의 포진이야말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덧붙인다. 최신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해내기 때문이다. 소화기내시경실을 이끌어가는 의료진이 모두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자기 계발에 힘쓰는 이유다.

이에 지난 12월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증하는 우수 내시경실에 2012년에 이어 재인증을 받았다. 높아지는 내시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내시경실의 질 관리가 요구되며 시작된 이 인증은 내시경 의사의 자격(인력), 시설 및 장비, 과정, 성과지표, 감염 및 소독의 항목으로 전국단위의 내시경실을 평가한다. 내시경실의 질 관리뿐만 아닌 ‘향상’을 목적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우수 내시경실을 인증하는 가운데 이 평가를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한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을 이끌었던

한동수 기획관리실장이니, 소화기내시경실 관리는 외부의 인증평가보다 더 꼼꼼하고 철저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환자를 생각하며 그리는 더 큰 내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은 두 군데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다. 한쪽은 병실환자, 또 한쪽은 외래 환자 출입용으로, 만일에 벌어질 수 있는 감염 문제를 출입에서부터 통제하고자 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소화기내시경실은 2017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신관 신축을 앞두고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진은 그들의 역량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센터나 클리닉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도, 안전하고 쾌적한 내시경실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시경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치료의 영역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다양해질 겁니다.”

최신의 동향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안전하고 간단한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교수진, 그런 교수진의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하는 간호진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은 이미 국내 최고의 내시경실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발전할 것이 남아있고,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지금처럼 묵묵하게, 그리고 꾸준히 앞서 나가며 내시경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Mini Interview

“늘 발전하고 변화하는 소화기내시경실이 되겠습니다”

은창수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오늘날 내시경은 정기적인 검사 외에도 다양한 치료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과 같이 초기 발견 및 진단이 중요한 질환에서 내시경을 통한 확인과 치료는 보다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도 완치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내시경으로 환자의 몸 속 작은 이상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시경실은 고화질의 최신 기기, 그리고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의료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는 병원 내의 진료와 연구, 교육 등 모든 부분을 선도해나가는 과입니다. 더불어 소화기내시경실 역시, 그 구성원 모두가 각자 스페셜리스트이자 프로페셔널이라는 주인 의식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발전 속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우수 내시경실 인증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화기내시경실의 목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환자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늘 발전하고 변화하는 소화기내시경실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비너스의 완성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신민아의 비만

영화 <미녀는 괴로워(2006)>의 주인공 강한나(김아중), 드라마 <미녀의 탄생(2014)>의 사라(한예슬). 극의 시작부터 덩치 큰 '뚱녀'로 등장하는 이들은 살 때문에 외면받고 굴욕을 당하지만, 다양한 계기를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 그리고 마침내 일에 성공하고 사랑을 쟁취하며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날씬해진 그녀들의 행복찾기, 여기에 <오 마이 비너스> 강주은(신민아)이 합류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새삼스럽다. 체중 감량 후 빛을 발하는 모습이 아닌, 체중 감량 과정 자체에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로맨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말이다.

글. 박여민 사진. KBS2TV



다이어트와 사랑, 동시에 잡으면 안돼요?

타고난 미모와 몸매로 '대구 비너스'라 불리던 강주은(신민아). 마음만 먹으면 뭉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악착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나름 잘나가는 중소로펌 소속 변호사가 됐다. 15년을 사귀어 잘나가는 몸짱 남자친구와의 연애 전선에도 문제가 없으니, 그녀의 인생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딱 한가지, 치열했던 15년의 시간 속에서 얻지 말아야 했을 '뚱'이 달라붙었으니, 그것은 바로 '살'. 다이어트는 마음먹는 즉즉 요요로 돌아오고, 이제는 코르셋으로 복부를 압박해도 가릴 수 없는 살들이 언제나 그녀와 함께한다.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 때문일까, 프로포즈를 기대했던 15주년 기념일에 남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했다.

잃어버린 과거의 강주은을 되찾겠다며 절체절명의 다이어트를 결심한 순간, 그녀 앞에 운명처럼 한 남자가 나타난다. 바로 얼굴 없는 할리우드 스타 트레이너이자 의료그룹 '가홍'의 후계자인 김영호(소지섭). 계속되는 우연이 겹치며 가까워진 이들은 주은의 다이어트를 목표로 혹독한 트레이닝에 들어간다. 사랑과 일에 치여 힘든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예의 "마음만 먹으면 뭉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을 해내는 주은을 바라보는 영호의 눈빛은 웬지 모르게 따뜻하다. 함께 운동을 하며 벌어지는 헤프닝,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게 되는 스킨십이 반복되며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른다. 그리고 주은과 영호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살 속으로 숨어버렸던 15년 전 대구비너스의 모습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비만' 과연 무엇의 기준이 될까?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는 방영 전부터 세간의 열띤 관심을 받았다. 몸짱 스타 소지섭이 헬스 트레이너로 출연한다는 사실보다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 77kg의 강주은을 표현하기 위해 신민아가 도전한 특수분장이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의 비만을 표현하기 위한 특수분장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다.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비만이었던 주인공이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역경을 탈출하고 일과 사랑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이다.

가냘프고 호리호리한 몸매가 아닌,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고, 때로는 큰 덩치 때문에 옷지 못할 사고를 일으키는 그녀들의 모습은 한편 현실적이면서도 신선하다. 그러나 곧 그들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운명을 건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다이어트 이유나 체중 감량의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다이어트 성공과 함께 자신감을 얻고, 마침내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비만은 대체로 여 주인공의 외모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미녀에게 불가능은 없다던가. 특히나 뚱뚱했던 시절엔 '감히' 꿈만꾸야 했던 '사랑'은 환골탈태한 그녀들에게는 기다렸다는 듯 등장한다. 그 밖의 성공을 쟁취하는 것도 대부분 이미 비만 분장에서 탈출한 아름다운 그녀들의 몫이 된다.

뚱뚱한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 대부분이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미디어 속 비만은 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그것도 대부분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억압기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뚱뚱한 여 주인공의 등장은 한편 반가우면서도 늘 아쉽기만 하다.

우리가 적정 체중과 균형잡힌 몸매를 유지해야 하는 데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숨어있다. 비만이야 말로 우리 몸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눈에 보이는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주위에서 자신의 덩치와 상관없이 일도 사랑도 멋지게 성공해내는 여성, 그리고 남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다만 그들에게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체중이 당신에게 무리를 주는 것은 아닌지, 지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인 경우가 많다.

물론, 외모로 많은 것이 좌우되는 요즘 사회에서, 날씬한 몸은 스스로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 용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다이어트는 몸의, 그리고 정신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비만, 피하지 말고 극복해라



황환식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맞춤형비만치료센터장

'비만'이란?

일반적으로 체질량지수인 BMI(Body Mass Index)가 체지방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서 사용한다.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비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성인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과체중을 BMI 23~24.9kg/m², 비만을 BMI ≥ 25kg/m²으로 정의한다. 체질량지수 이외에도 체지방 측정 방법으로 피부주름두께 측정, 생체전기저항 분석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허리 둘레를 측정하여 복부 지방량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복부비만으로 본다.

비만은 질병일까?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성인 인구의 1/3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질환, 골관절염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며 이들 질병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인다. 오늘날 비만은 완치가 아닌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만의 치료는 상담, 교육, 식사요법, 운동요법 및 약물요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아울러 비만 치료의 핵심은 체중 감량보다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치료할까?

비만을 치료하기에 앞서 영양상태와 운동능력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동기 부여가 치료 성공 여부를 가능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비만의 치료는 행동요법, 식사요법, 운동요법과 약물요법이 있으며 동반된 건강 문제에 따른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체중 감량 이후에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고도 비만의 경우 비약물치료와 약물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동반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다.



소화기 대장항문 건강지킴이!

남양주 양병원

겪일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와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함께 커온 병원이 있다. 강동 최고의 소화기·대장항문 전문병원으로 꼽히는 남양주 양병원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 길동에 서울 양병원을 건립하고 한발 더 나아가 건강검진센터까지 설립한 양병원은 현재를 발판으로 의료선진국의 미래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차곡차곡 그려가고 있다.

글. 임지영 사진. 김재이

조그만 동네 외과에서 최고의 대장항문전문병원으로

“초지일관, 초심을 유지했던 것이 여기까지 온 비결인 것 같습니다.” 병원운영의 정도(正道)라 할 수 있는 양병원이 걸어온 길을 추억하는 이영찬 원장의 미소 속에서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 나온다.

지금은 수도권 최고의 대장항문 병원으로 꼽히는 양병원은 1986년 구리시 ‘양형규 외과’에서 출발했다. 당시만 해도 대장항문계의 질환이나 고통을 부끄러운 것으로 감추는 환자들이 많아 치질 수술 비율이 미미했다. 그러나 10년을 내다보던 양병원은 1996년, 남양주시 최초의 병원급인 ‘양병원’으로 메머드급 변신을 시도한 끝에 괄목상대할 성장을 이루었다.

우수한 의료진 채용, 해외 병원 연수, 활발한 학회 발표, 저술 활동 등 끊임없는 임상연구를 통해 양병원만의 핵심 의료기술의 발판을 확고

히 하며 차츰 대장항문 전문병원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간 것. 현재는 대장항문 수술이 전체 수술에서 8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장항문 전문병원으로 성장했다.

환자의 수술에 있어 최대한 생리적 기능 보존을 가능케 하는 점막하 치핵 절제술, 항문 괄약근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시톤법을 이용한 치루 수술, 복강경을 이용한 대장암, 위암, 담낭, 탈장 수술 등은 양병원의 장점이다. 차별화된 의료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인정받아 2008년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대장암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서울과 남양주 양병원이 모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규모는 중소병원이지만 실력은 대학병원급임을 인정받은 것. 2005년 서울 강동지역에 개원한 서울 양병원 또한 대장, 항문 분야와 더불어 소화기내과 분야 특화병원으로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는 중이다.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수준 높은 의료진 양성과 양병원부설 출판부를 개설하고 의사들을 위한 전문서적과 일반인을 위한 건강서적 발간을 발간해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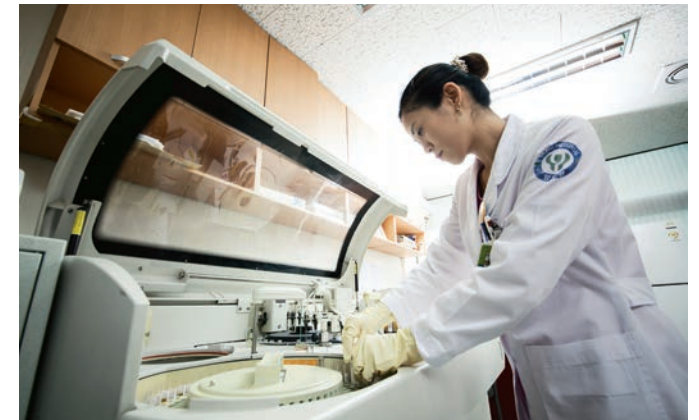
국민건강증진 위한 적극적 행보, 건강검진센터 설립

2년 전인 2013년, 양병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았다. 십 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병원의 미션과 비전만큼은 ‘초지일관’ 변함이 없다. 어디 변함이 없는 게 미션과 비전뿐일까? 병원 개원 2년 만에 손을 잡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의 협력 관계도 오늘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심장내과와 진료과목이 겹치는 환자라든지 대장암 환자 중 마취가 필요한 환자 등 저희가 치료를 못하는 환자들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처음 협력이 시작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저희 병원으로서 는 부담 없이 환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2004년부터는 ‘1% 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매월 병원 수익의 1%를 기금으로 쌓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다. 시청과 상의 하에 무료 의료봉사에 나서는 날도 많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만 날개 없는 천사가 따로 없다.

“엄마는 심각한 장애가 있고 아빠가 일용직으로 간신히 돈을 벌며 생활을 하는 집의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열 살이나 되었을까? 어려서부터 제대로 못 먹고 배변습관을 잘못 들인 까닭에 심한 변비를 앓고 있었는데 그것을 숙명으로 여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



남양주 양병원

●주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33
●문의 : 031-590-9000

희가 숙면 치료를 해주었는데 그 덕분인지 아이가 몰라보게 안색도 좋아지고 살도 오르고 했더군요. 만남이 소중해지는 때 순간순간이 저희들에겐 보상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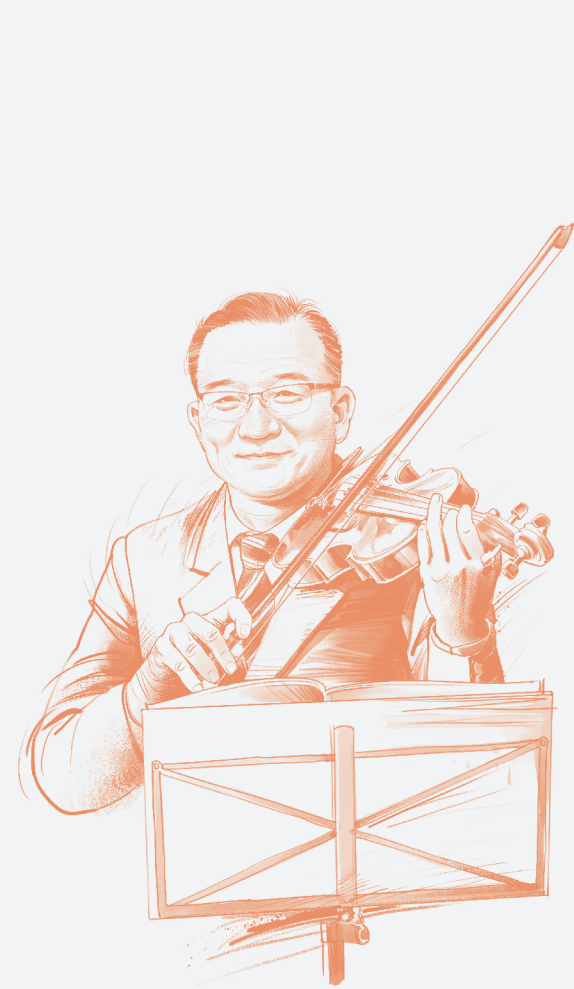
양병원은 그간의 노하우와 특화 중목을 살려 국민건강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계획으로 3년 전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했다. 건강검진센터는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양병원과 사이좋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사후처리로 병원이 소재한 강동권과 남양주뿐만 아니라 하남, 송파, 양평, 가평의 건강진단까지 담당하며 매년 30%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저희 양병원은 차별화된 특징점으로 꿈꾸는 씨앗을 튼실한 열매로 키워온 병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헌신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와 불행이라는 악순환의 시작

리하르트 바그너 4부작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중 제1부 <라인의 황금>

Wilhelm Richard Wagner <Das Rheingold> from <The ring of the Nibelung>



바그너는 낭만주의 작가들이 발굴한 게르만 신화와 중세 기사에 관한 전설을 소재삼아 대형 악극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오페라가 바로 4부작 <니벨룽겐의 반지>이다. 이는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그프리트>, <신들의 황혼> 4부로 구성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니벨룽겐은 니벨룽의 복수형으로 '죽은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네벨하임'에서 유래된 말이고, '니벨룽'은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오페라는 북유럽 신화에서 발췌한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는데 신의 대표 보탄과 지그프ρί트를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등장한다. 주제는 절대적인 권력과 부를 약속하는 반지이지만 반지를 만든 자들은 모조리 몰락하거나 죽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반지는 라인강의 요정들에게서 신들을 거쳐 거인에게로, 다시 거인에게서 지그프리트에게로 넘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엔 지그프리트의 애인 브륄힐데의 손을 거쳐 라인의 요정에게로 되돌아가며 반지에서 다시 황금으로 순환하는 복잡하고 흥미로운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니벨룽겐의 반지>의 대본 및 작곡은 바그너가 취리히에 망명하였을 때 직접 진행하였다. 1848년 5월 드레스덴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 드레스덴 궁정악장이었던 바그너가 혁명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는데 혁명이 진압된 뒤 혁명 운동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체포령이 내려지자 그 후 9년 동안 스위스에 피신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아내 민나와의 사이가 심각하게 벌어져 몸과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러던 중 구사일생으로 취리히의 갑부 베젠동크 부부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을 느끼지 않고 창작 활동에 몰두 할 수 있었다. 처음 계획으로는 후에 전 편의 종결편이 된 <신들의 황혼>에 해당되는 <젊은 지그프리트의 죽음>만으로 독립된 오페라를 만들 생각이었으나, 바그너는 즐거리를 좇아 앞으로 자주 나아가며 대본을 쓰게 된다. 결국 <지그프리트>, <발퀴레>, <라인의 황금> 순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특히 1852년 여름 스위스의 알프스 산정을 답파한 체험은 그의 창작 의욕을 크게 북돋아 주게 된다.

1852년 초 전 4부의 대본을 완성한 바그너는 즉시 작곡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대본 때와는 달리 작품의 순서대로 <라인의 황금>부터 작곡을 시작하면서 그는 동료이자 훗날 장인이 되는 프란츠 리스트에게 '벗이여, 나는 기적에 젖어 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라인의 황금>의 멋진 장면이 완성되었고 내가 미처 예감하지 못했던 풍성함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내 재산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이고 모든 것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며 음악을 울려 주고 있다'고 흥분하며 편지를 쓴다.

<니벨룽겐의 반지> 4부를 각각 살펴보면 제1부 <라인의 황금>은 1막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라인 강바닥 막이 오르면 라인의 강바닥이 나타나며 세 처녀가 황금을 지키고 있다. 여기에 난장이 알베리히가 나타나 처녀들을 뒤흔들지만 처녀들은 못생긴 알베리히를 꺼려 도망친다. 그러다 강바닥의 황금을 발견한 알베리히는 이 황금으로 반지를 만든 자는 세계를 통치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이것을 갖는 자는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언뜻 듣게 된다. 그러자 그는 처녀들을 속이고 그 금덩어리를 빼앗는다. 이것이 이 작품 전체의 비극의 씨앗이 된다.

제2장 신들의 세계 하늘 위의 새로 지은 웅장하고 화려한 발할 성에서 신의 우두머리 보탄이 다른 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 보탄은 미의 여신 프라이아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거인족인 파졸트와 파프너 형제에게 궁전을 지을 것을 거래한다. 그러나 궁전이 완성된 후 신들은 프라이아가 없어지면 그들이 노쇠해지기 때문에 그녀를 주기로 한 보탄을 비난한다. 난처해진 보탄은 불의 신 로게를 부른다. 로게는 프라이아를 포기하지 않고도 반지를 얻을 수 있다며 알베리히가 라인의 황금을 훔쳐 반지를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것을 빼앗자고 제안한다.

제3장 지하세계 니벨하임 불의 신 로게와 함께 보탄은 지하의 난장이족 세계로 내려간다. 한편 알베리히는 동생 미메를 시켜 자유자재로 변신가능한 마법의 투구를 만들게 한다. 이를 본 로게는 그에게 구령이로 변해보라고 하여 놀라는 척하다 다시 작은 두꺼비로 변신케 한 뒤 그를 붙잡아 마법의 투구와 라인의 황금으로 만든 반지를 빼앗고 보탄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한다. 반지를 빼앗긴 알베리히는 그 반지를 가진 자에게 즉시 죽음이 닥치리라고 저주를 한다.

제4장 신들의 세계 보탄은 이 반지를 프라이아 대신 거인 형제에게 어쩔 수 없이 준다. 보탄에게서 마법의 투구와 반지를 받아 즉각 그 저주가 나타나 거인 형제는 서로 싸우다 파프너가 형 파졸트를 죽인다. 이를 본 보탄은 불길한 공기를 휩쓸어 없애라고 천둥의 신 도너에게 명령한다. 도너가 철퇴를 내려치자 천둥 구름이 밀려서 피 냄새나는 공기를 쓸어 없앤다. 보탄은 행복의 신 프로가 놓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 유유히 발할 성으로 들어간다. 이때 유명한 '발할 성으로의 신들의 입장'의 웅장하고 화려한 선율이 흐르며 막이 내린다. 🎵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제)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들을만한 Album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DG, 1967)
지휘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보탄),
줄탄 켈레만(알베리히), 마르티
탈벨라(파졸트), 칼 리더부쉬
(파프너), 도날드 글로베(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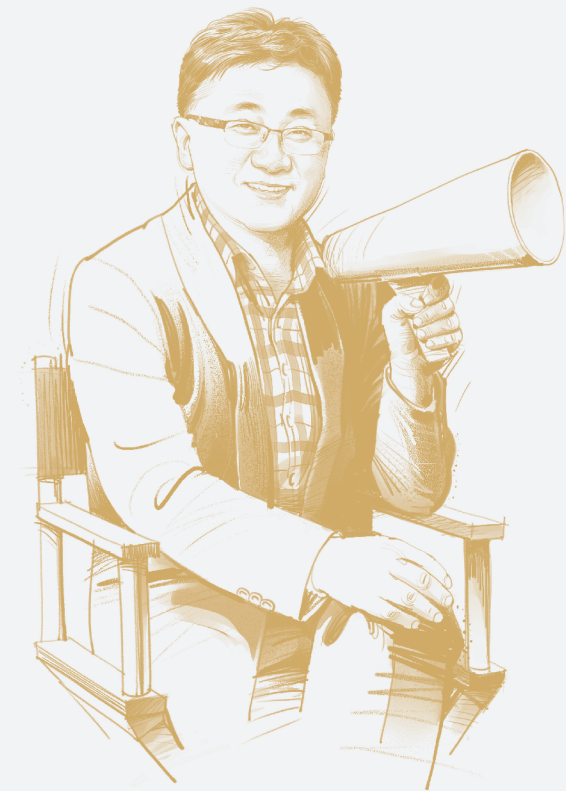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ecca, 1965)
지휘 : 게오르그 솔티
조지 런던(보탄), 키르스텐
플라그스타트(프리카), 쿠스타프
나이들링거(알베리히), 쿠르트 뵘메
(파프너)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DG, 1966)
지휘 : 칼 뵘
테오 아담(보탄), 볼프강 빈트가센
(로게), 마르티 탈벨라(파졸트),
쿠르트 뵘메(파프너)

행복을 쟁취하거나 어려운 관계를 맺거나

공존과 관계맺기의 사회학



어느덧 ‘행복’은 삶의 과정 중에서 얻는 전리품이 아닌, 그 자체로서 인생의 목표가 되어 버린 듯하다. 1886년 7월 ‘한성주보’에 국내 최초로 등장한 ‘행복’은 발없는 말처럼 실체도 없이 끝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한 결과 오늘날 세속종교로 신화화하여 우리를 옥죄고 있다. 수많은 멘토들의 인문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다양한 힐링 레시피는 오히려 ‘행복’이라 쓰여진 단어를 ‘스트레스’라고 발음하게 만들고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심리의 바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연유한 것일 터. 뱃속부터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개인적, 공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재조명하며 인정받기를 무의식적으로 희구한다.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거나 의미부여가 영구적이지 못할 때, 혹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면 불행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비록 온전히 개인적인 노력으로 습득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행복’은 어느 정도는 스스로 그 의미를 만들고 가꾸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인 듯하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영화가 제작된 미국보다 국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인턴(2015)**은 감독 낸시 마이어스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바 있다. 점증되는 세대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개진만으로는 불가능한 시점에 다다른 한국현실에서 참조해 볼 수 있는 영화였다. 단, 성차별적인 시선을 배제하고, 영화에는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어야 한 다거나, 세대차이를 확정적인 시각으로 뼈뺏하게 보는 전제만 배제한다면.

70대의 벤(로버트 드 니로)은 일선에서 은퇴(서양의 시각은 일에서 자유로워지며 다시 자신을 찾는다는 개인주의적인 의미로 쓰이므로 돈을 못 벌게 되어도 계속 가장의 지위에 묶이는 한국과는 다르다)하였지만 삶의 의미(소속감을 의미하는 듯하다)를 찾고 자신을 되찾기 위해(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인턴사원으로 재취업한다. 그는 철저하게 아날로그적이다. 정장을 입고 출근한 첫날,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어 책상에 정렬하는 물품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나이든 사람의 경험, 혹은 지혜란 그가 살아왔던 지난한 질곡의 대처법을 말해주는 간명한 아포리즘일 것이다.

그에 반해 30대 여성 CEO 줄스(앤 해서웨이)와 회사 직원들은 경험은 없으나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벌써 균열이 생겨있고, 모든 것이 0과 1로 치환되는 디지털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지선다형 이상의 주관식 문제가 산적해있다. 벤은 그럴 때마다 어깨의 힘을 빼고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손끝 하나의 움직임만으로 갈등을 봉합해간다. 회사 내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그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동반자가 되어간다. 서로가 다른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배타적인 틀림이 아님을 확인해갈 때, 그러면서 조금씩 닮아갈 때, 공존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평범한 가장이자 고등학교 음악선생님, 심포니의 서브 첼리스트 키이스(가이 피어스)는 가을학기에 교환학생으로 집에 온 영국 학생 소피(펠리시티 존스)에게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사랑한 시간(2013)**은 어느 날 중년의 남자에게 걱정적으로 다가온 어린 여성의 존재 의미와 그에 따른 책임감을 담담히 말하고 있다. 정신적인 각성

은 로리타 류의 통속적이고 육체적인 관계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열정이 사라지고 그냥 묵묵히 소일하던 쳇바퀴 속의 다람쥐(그의 시야는 오로지 발 밑의 바퀴에만 집중되어 다른 곳은 보지 못한다)같은 아저씨의 일상은 깨어나는 내면의 욕망(육체적인 허기를 의미하는 욕구와는 다르다)으로 인해 조금씩 균열되어 간다. 그들의 교감은 각자 피아노와 첼로 연주에 몰입하면서 생긴 예술적 갈등의 해소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지 좀 더 심층적일 뿐이다.

둘 사이의 위험한 관계는 점점 더 위태롭게 파국으로 치닫는데, 평안한 가정을 이끌던 가장과 미래의 꿈을 위해 타국으로 건너 온 학생은 피어 오르는 열정과 불안감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둘의 관계를 지속할 지, 삶의 울타리였던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야 할지는 그들의 몫이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두 이모와 함께 살게 된 폴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로 인해 그의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모든 일에 무덤덤해지게 된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2013)**은 화려한 색채로 꾸며진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를 보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영화이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완역자 이외에는 읽기가 불가할 정도로 난해하고 장구한 7편의 연작소설이다. 마들렌 과자 정도라면 알려져 있는 이 소설은 텍스트의 의미인 ‘직물’ 그대로 촌촌하게 소설 한 권에 인생의 모든 것(자아 회복, 의미의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끝없는 구도)을 기억의 회상으로 구현하여 담으려 했다. 프루스트가 말한 기억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

우연히 이웃집 프루스트 여사의 집을 방문한 폴은 신비스러운 정원에서 자신의 성장을 멈추게 했던 과거 기억과 맞서게 된다. 의식 밑바닥에 흐르는 기억이란, 진정제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독약처럼 작용하기도 하므로 인지의 표피로 분출시켜 다시금 판단하여 그때그때 굳건히 버티는 정신적인 근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부모의 사고사에 기인했던 과거를 털어버린 폴은 혼자 힘으로 관계를 맺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Vis Ta Vie(네 인생을 살아라).”

거장 알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제자 자파르 파나히가 주연, 감독한 **택시(2015)**는 합승이 일상화된 이란의 답답한 규제와 탄압, 부조리를 로드 무비 혹은 페이크 다큐처럼 진행되는 택시 안에서의 5회의 인터뷰를 통해 20년간 영화제작을 금지 당한 감독의 심경을 날날이 드러낸다. 다양한 승객들을 통해 ‘현실’과 ‘촬영된 리얼리티’와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조감하며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풍자를 통해 가볍지 않게 그려낸다. ‘추악한 리얼리티’는 절대 그려내지 말라는 국가의 강력한 권고는 마지막 장면에서 조카와 함께 택시를 나선 파나히의 택시 안 카메라를 훑쳐가는 강도에 의해 ‘진정한 리얼리티’로 거듭나게 된다. 비록 그가 촬영할지언정 카메라에 담긴 작품으로서의 영화는 그의 손을 벗어나 민초의 손에 도달하게 되는 이 기묘한 순환구조는 베를린 영화제 대상 수상으로 인해 국가를 초월한 관계 맺기로 귀결된다. 🇮🇷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사를 꿈꾸었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실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까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어온 내공 덕분이다.

볼만한 Movie



인턴(2015)
감독 : 낸시 마이어스
출연 : 앤 해서웨이, 로버트 드 니로



우리가 사랑한 시간 (2013)
감독 : 드레이크 도리머스
출연 : 가이 피어스, 펠리시티 존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2013)
감독 : 실뱅 쇼메
출연 : 귀욤 고익스, 앤 르니



벗 입은 마하, 1800 - 1803

청각을 잃고 그려낸 강렬한 어둠의 빛

프란시스코 고야 & 청각장애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는 〈카를로스 4세 가족의 초상〉, 〈카프리초스(변덕)〉, 〈1808년 5월 3일〉, 〈투우〉 등의 작품을 그린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다. 고야의 작품은 기쁨과 빛을 표현한 전기 작품과 사회의 어두운면과 악몽을 주로 표현한 후기의 작품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는 청각을 잃었다.

글. 송창면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파리슬, 1777



이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
1819 - 1823



우아한 옷을 입은 평민 출신 여인
1821 - 1823

청각장애의 다양한 원인

고야가 청각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매독설이다. 18세기에는 매독이 유행했다. 하지만 매독만으로 그가 말년에 앓았던 신경학적인 질환들까지 모두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매독은 자체에 의해서도 난청이 생길 수도 있으나, 매독 치료를 위해 사용한 수은 연고가 수은 중독에 의한 뇌증(Encephalopathy)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매독 치료로 수은 연고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수은이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수은 떨림(Mercurial tremor), 우울증 등을 일으켰다. 또한 말초 신경에 작용하여 시신경염과 어지러움증, 구내염, 장염, 신장 질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 매독 치료로 수은 연고를 사용한 것은 16세기부터 약 3세기에 걸쳐 유지되었는데, 이것이 매독의 진행을 늦추는 데는 효과가 좋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의 물감에 포함된 납이 납중독을 일으켰다는 설이 있다. 당시에 안료 중 일부 색은 천연에서 얻은 무기물로 제작하였는데, 이 중 납을 포함한 색들이 있어서 피부나 호흡기로 이를 장기간 접촉할 경우 동맥 경화와 신경병들이 생길 수 있었다. 납중독에 의한 뇌증은 실신, 환청, 섬망, 우울증과 치매를 일으키기도 하며, 난청과 어지러움증, 팔의 마비를 일으키게도 한다. 고야가 말년에 심한 진행성 청각 장애와 함께 발작적 어지러움증, 우울증, 환청, 팔의 마비가 있었다는 점은 납중독 가능성을 강력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작품 세계를 변화시킨 질병, 이제는 치료 가능

난청은 귀 영역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신경에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리가 전달되는 고막, 중이 등에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난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비유전적인 경우 산전 감염, 세균, 바이러스, 매독균에 의한 염증성 질환, 외상, 나이듦에 따라 생기는 노인성,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대사 이상, 허혈성 질환, 청신경종양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 전음성 난청은 만성 중이염, 고막 천공, 이소골 질환 등이 원인이 된다. 난청의 치료법에는 약물 치료, 수술, 보청기 등이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 와우 이식, 중이 이식, 뇌간 이식 등의 의술이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치료법들을 사용한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고야는 8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의 천부적인 재능이 드러나는 밝고 다양한 전기 작품에 비해, 질병에 영향을 받은 후기 작품들은 어두운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난청과 동반된 건강 염려증과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질환이 심해질수록 고야의 그림은 점점 소심해졌다. 현대적인 이비인후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난청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받았었다면 그의 작품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매력을 간직한 그의 후기 작품들 역시 고야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주관성과 담대한 화필을 간직한 고야의 작품들은 후세에 마네와 피카소 등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희망을 되찾아준 당신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창범 내분비내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눈에 이상이 생겨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도통 병명을 찾지 못했던 서효숙님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찾아 갑상선기능항진증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3년, 완치 후 재발이라는

시련을 딛고 퇴원을 앞둔 서효숙님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정리. 박채림 사진. 김지원



따듯한 겨울로 응원해주신
이창범 교수님께

저는 제주에서 올라온 서효숙이라고
합니다. 3년 전 갑작스럽게 한 쪽
눈이 불편하여 제주에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렇다 할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눈이 돌출되고 복시가 심해져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튀어나온 눈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고,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어지러움도 심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거의 모든 병원을 찾아 다녔지만 병명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막함만 더해갔지요.**

홀로 제주에 내려가 장사를 하고 있던 제게는 너무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구리로 올라와 다시 병원을
수소문하면서 저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당뇨병에 대해 자문을 하시는 이창범
교수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부탁하여 이창범 교수님이
계신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그저
희귀병으로 진단받은 눈의 상태가 갑상선기능항진증 때문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을 통해
병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던 눈이
차차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어 준
것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료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회진을 돌며
어떻게든 병이 나아야 한다고 다독이시는 모습에 외롭던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병이 완치되고 퇴원한지 1년 만에 개인적인 시련
때문에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재발했고, 저는 다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찾았습니다. 반복되는
치료 앞에서 절망했던 마음도 잠시, 퇴원을 앞둔
지금 다시 한번 이창범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로 돌아가 혼자 지낼 날이 막막하지만 가족처럼
제 곁을 지켜주신 덕에 한결 마음이 편안합니다. 병을 가족처럼,
자식처럼 생각하라는 이창범 과장님의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서효숙 드림



서효숙님께

저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분비내과 이창범 과장입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부학장을 겸하고 있지요. 내분비내과는 주로 호르몬 등 우리
몸의 대사와 관련된 이상 증상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러한 질병들은
식이요법과 약물 요법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만큼 환자의 의지 또한 중요하지요.

**서효숙님께서는 3년 전 당뇨가 생겼고,
여기에 약간의 풍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복합적으로 발병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병이 생겨 진단과 치료도 까다로웠지요.**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경우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이 동반되곤
하는데 서효숙님은 특히나 더 증상이 심했습니다. 남들 앞에
서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동반한 치료가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낮고자 하는 환자 본인의 의지가
강해 현재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병 자체를 자기 몸 속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라고요. 평생 관리를 해주어야 하니까요.
처음 만성질환이 시작되면 말을 잘 듣는 세 살배기 아기वाद
같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병도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병이
오래되면 합병증이 오게 되고 약에 대한 반응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면
병도 철이 들어 좋아지는 날도 분명히 있지요.**
**어떤 감사의 말보다도 환자분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일부러
저를 수소문해 찾아주신 서효숙님과 오랜 인연이 건강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창범 드림

한양대학교의료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4회 연속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한양대학교 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모든 항목 만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18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금연교육실시율, 연하장애선별 검사 실시율, 뇌영상검사 실시율, 조기재활 평가율, 지질검사 실시율,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4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굿네이버스와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본원은 지난 10월 27일 굿네이버스와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와 정보를 교환하고, 긴급구조 또는 의료봉사활동 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지원을 함께하기로 했다. 또, 아동 학대와 폭력의 피해 대상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하기로 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서 '1등급'

본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 및 항생제 투약일수율, 항생제 처방률 그래프 및 중이염 상병비중,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비율,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등을 평가했으며, 본원은 4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단양군 이동 무료진료 실시



본원은 지난 10월 30일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단양군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에는 신장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과 의료진이 협진, 당뇨,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서비스를 3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장기이식센터, 이식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개최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11월 17일 본관 3층 강당에서 '2015년 이식환우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센터장 권오정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가 '신장이식 전 검사', 신장내과 강종명 교수가 '이식 후 건강관리', 비뇨기과 박해영 교수가 '신장공여자의 건강관리', 영양팀 엄기숙 영양사가 '이식 후 영양관리', 약제팀 정유진 약사가 '이식 후 투약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동구와 취약계층 아동 건강지원사업



지난 11월 18일 성동구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지원을 위해 성동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의료소외계층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상호간 공동 노력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상호 협력 ▲건강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아동의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호 의뢰 등이다. 이와 관련, 11월 21일에는 성동구에서 추천한 고위험군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간호국, 비전선포식 개최



간호국은 지난 11월 24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간호국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미션으로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여 고객 감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를, 비전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국', '전문적이고 실력있는 간호국', '열린 마음으로 화합하는 간호국',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간호국'을, 핵심가치로 '환자안전, 첨단간호, 소통, 인재양성, 사회공헌'을 선포했다.

제2회 암센터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지난 12월 5일 '제2회 암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은 'Supportive & Palliative Care for Cancer Patient'를 주제로 암센터 강혜령 중양전문간호사와 영양팀 김민선 영양사, 정신건강의학과 김석현 교수, 재활의학과 김태곤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박혜진 교수, 혈액종양내과 엄지은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Multidisciplinary, Comprehensive Approach in Cancer Treatment'를 주제로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 외과 권성준 교수, 정형외과 김태승 교수, 산부인과 최준섭 교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윤호주 교수, 외과 이경근 교수, 외과 정민성 교수, 소아청소년과 이영호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암센터는 다학제 협력진료실을 신설하고 갑상선종양센터 등 15개 세부 진료센터와 암연구 및 교육센터를 개설하는 등 긴밀하고 유기적인 다학제 협력 진료를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병원장배 체육대회' 개최



본원은 지난 10월 31일 남양주시 퇴계원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야구장에서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해, 김재민 병원장, 박원경 부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5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중심이 되고 대표적인 의료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교직원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병원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유난히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여러분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련한 자리이니 많은 우정을 나누시고 화합과 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병원장배 체육대회'를 열었다. 무한열정, 무한사랑, 무한도전, 무한실천의 4개 팀이 변형 피구, 장애물 릴레이, 미션인파서블, 달랠라 특급열차 등 다양한 경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치렀으며, 인증평가로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직원간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원발전에 공로가 큰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모범직원상을 수상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 안과 조희운 교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상, 간호국 김용희 계장, 영상의학과 이현중 계장, 인사총무팀 이상미 계장 ▲병원장상, 피부과 김영균 전공의 외 5명 ▲우수병동상, 7층 병동 ▲우수검사실상, 심장센터 검사실 ▲우수부서상, 고객지원팀 ▲홍보상, 마취통증의학과 심재향 교수, 감염내과 김지은 교수, 안과 임한웅 교수 ▲공로상, 시설팀 김우길 부장, IT팀 박지애 계장 ▲최다진료의뢰 진료과상, 응급의학과 ▲최우수외과상, 이비인후과 ▲우수외과상, 신경과 ▲최우수전공의상, 외과 황성환 ▲우수전공의상, 신경외과 한건희 ▲감사장, 협력업체 (주)인건업 국윤순, (주)한불에너지관리 강광호, (주)자이언건축개발 허호환 대표.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구리보건소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높이기 일환으로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6일에는 신경외과 정진환 교수가 '뇌혈관의 원인 및 치료'를 주제로, 12월 4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교수가 '불면증과 우울증'을 주제로 강의했다.

영·유아를 위한 눈 건강 관리 특강



지난 11월 11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눈의 날 기념 행사로 열린 '2015 영앙플러스 행사'에서 본원 안과가 '영·유아를 위한 눈 건강 관리'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좌는 안과 조희운 교수와 임한웅 교수가 '눈에 좋은 식품과 눈 건강 관리'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지역 협력 병 · 의원 방문



본원 김재민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는 지역의 협력 병·의원과의 긴밀한 진료의뢰 협조 관계 구축을 위해, 본원에 진료의뢰가 높은 병·의원과 지역 동문병원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2015 성과보고회 개최



본원은 지난 11월 27일 본원 1층 로비에서 '2015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수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의 다양한 일들을 정리한 동영상 시청과 전재범 기획본부위원장의 성과보고가 이어졌다. 배상철 병원장은 "본원은 글로벌세포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루푸스를 포함한 난치성류마티스질환의 줄기세포치료와 맞춤 치료와 같은 국내 류마티스질환 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및 진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루푸스, 건염, 성인형스틸병, 경피증, 강직성척추염 등에 이어 올해 베체트병을 포함한 혈관염, 간선관절염 등의 클리닉을 추가로 개설해 난치성 환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의 정미홍 협회장이 '새 삶을 만드는 감성 대화법'이라는 주제 강연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인사,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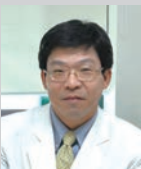
최동호 교수,
간담체외과학회
최우수상 등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최동호 교수가 지난 10월 16일~17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45차 대한이식학회'에서 '자유연계 기초부분 최우수상', 11월 5일~7일 서울 그랜드 힐튼에서 진행된 '제43차 간담체외과학회'에서 '최우수상', 11월 7일~8일 서울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된 '제2차 생체 간이식연구학회'에서 '베스트포스터워드' 등을 수상했다. 또 11월 5~7일 서울 그랜드 힐튼에서 진행된 '제67차 대한외과학회'에서도 최동호 교수팀은 '임상적용 가능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구축 및 간세포분화'라는 논문으로 '구연상'을 수상했다.



임태호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태호 교수가 지난 11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가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희태 교수,
KMDS 차기 회장 선출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희태 교수가 지난 10월 24일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5년 대한 파킨슨 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장(2016년~2018년)으로 선출됐다.



김정태 교수,
중국 미세수술 국제학술대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김정태 교수가 지난 11월 27일~29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1회 동방 미세수술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되어 'Supermicrosurgery in emergent cases'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영수 교수,
홍콩 성 데레사 병원
서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가 지난 12월 3일 홍콩 성 데레사 병원에서 열린 'Brain LAB Exac Trac System' 개설킴 포지엄에 초청되어 '방사선 수술 및 치료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보다 앞서, 홍콩 성 데레사 병원 의료진들은 지난 5월 본원 노발리스TX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얼마 전 10주년을 맞이한 이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양대학교병원 'OOOO'(4글자)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블로그(news.hyumc.com)로 이동합니다. 소식지와 블로그에 있는 [Love, Life]를 참고하세요. 1월 말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news.hyumc.com/?p=14910>

11+12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첨자

유** myfrien***@hanmail.net
이** tokh***@hyumc.com
이** amac1***@hanmail.net
이** bleu1***@hyumc.com
김** kjh2344***@hanmail.net
조** gofhd***@naver.com
손** ss***@hanmail.net
김** geniu***@naver.com
정** mskim8***@nate.com
김** kimminsu***@naver.com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5년 10월 ~ 2015년 11월



한양대학교병원 교주연 피부과 교수 KBS2TV [비타민]/ 10월 1일/ 600회 특집 의사의 건강법 <백의사전>, 11월 5일/ 한절기 질환을 잡아라! /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 KBS2TV [비타민]/ 10월 1일/ 600회 특집 의사의 건강법 <백의사전> /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KBS2TV [비타민]/ 10월 1일/ 600회 특집 의사의 건강법 <백의사전> / **이승훈 영상의학과 교수** KBS2TV [비타민]/ 10월 1일/ 600회 특집 의사의 건강법 <백의사전> / **박창주 치과 교수** SBSR [건강칼럼]/ 10월 5일~11일/ 치과질환 / **조석현 이비인후과 교수** KBS1TV [뉴스광장]/ 10월 5일/ 수면무호흡증 진단, 예방법은? / **김정은 피부과 교수** MBC [기분 좋은 날]/ 10월 8일/ 피부 나이 돌리는 건강법 대공개 10월 30일/ 큰 일교차가 질병을 부른다.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법 /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KBS1R [라디오주치의]/ 10월 10일/ 위장과 대장질환 / **안병규 외과 교수** SBSR [언제나 청춘]/ 10월 12일/ 대장암, 10월 19일/ 항문질환 / **노영석 피부과 교수** MBC [생방송 오늘아침]/ 10월 16일/ 한절기 가렵고 따가운 피부, 피부 질환을 넘어 관절염까지? /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KBS1TV [뉴스광장]/ 10월 19일/ 간 건강 지키려면?, YTN 사이언스 [헬스라이프]/ 10월 22일/ 간의 첫 번째 경고! 지방간,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11월 18일/ 뜨끈한 국물의 유혹 / **황환식 가정의학과 교수** TV조선 [뉴스]/ 11월 4일/ 비만치료제 시장 확대..., MBC [기분 좋은 날]/ 11월 13일/ 당신도 젊어질 수 있는 화춘법! / **김승현 신경**

과 교수 SBS [8시뉴스]/ 11월 6일/ 줄기세포 치료제, 승인 전 환자에게 사용 가능 / **김이석 정형외과 교수** SBSR [언제나 청춘]/ 11월 9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11월 23일/ 고관절 골절 / **윤호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11월 11일/ 노인성 폐렴 / **손장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11월 11일/ 노인성 폐렴 /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YTN 사이언스 [헬스라이프]/ 11월 12일/ 숨을 옥죄는 고통, 천식 / **김영수 신경외과 교수** KBS1R [라디오주치의]/ 11월 22일/ 노화로 혼동하기 쉬운 '파킨슨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고성호 신경과 교수** KBS2TV [비타민]/ 10월 1일/ 600회 특집 의사의 건강법 <백의사전> /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1R [라디오주치의]/ 10월 8일/ 알레르기 질환의 모든 것, OBS [TV주치의]/ 10월 12일~16일/ 알레르기 질환, EBS [뉴스]/ 10월 22일/ 미세먼지 비상 /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MBC [8시뉴스]/ 11월 12일/ 당뇨 / **김자혜 소아청소년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1월 12일/ 엄마들의 입소문 '성조숙증' / **김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MBC [뉴스]/ 11월 13일/ 불안장애 /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교수** 한국경제TV [신 명의열전]/ 11월 26일/ 류마티스 관절염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이규훈 관절재활의학과 교수** YTN [사이언스 투데이]/ 10월 14일/ 관절염 앓는데 운동해도 될까?, 10월 19일/ 발, 찢터찢터 통증 느껴진다면?, SBSR [언제나 청춘]/ 11월 30일/ 무릎관절염



한양대학교병원 배현주 감염내과 교수 국민일보/ 10월 5일/ 메르스 원인은 '원내감염'... 해결 멀었다 **이수진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10월 5일/ 허리·무릎 아프고 눈도 침침... 참고 일하다 '농부병' 키워준요 / **신동호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7일/ 기도 좁아져 숨 차는 병 COPD... 환자 40% '비흡연자' / **김남수 소아청소년과 교수** 한겨레/ 10월 12일/ 엄마의 젖, 아이의 지능 발달에 '젖줄'일까 아닐까 / **김미정 재활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11월 1일/ 엉덩이뼈 부러진 노인, 절반이 두 달 내 숨진다, 11월 2

일/ 잦은 소변 탓 밤에 화장실 가다 뺑내장으로 시야 어두워 '파당'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재항 미취통증의학과 교수** 동아일보/ 10월 2일/ 척추·관절병원, '침단'치료법의 달콤한 유혹 / **박예수 정형외과 교수** 한국일보/ 10월 18일/ 내 뼈를 지키는 법, 유유 한 잔 마시고 햇볕쬐러 간다 / **조희운 안과 교수** 매일경제/ 11월 6일/ 스마트폰, 눈을 공격하다 / **홍상모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한국일보/ 11월 23일/ '단맛은 중독된다' WHO, 당분과의 전쟁 선포 / **한동수 소화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1월 25일/ 어린이 중이염, 감기에 항생제 남용 심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헤럴드경제/ 10월 13일/ 관절에 좋은 'Food 톱 10'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
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사
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
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
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 메일 송부(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5년 10월~2015년 11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1천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영환 핵의학과	박용미 본관9층	여광호 진단검사의학과	이주학 신장내과			
문수지 명예교수	강민호 안과	김옥중 물류팀	박용수 내분비대사내과	염종훈 마취통증의학과	이주한 영상의학과				
배상철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강보승 응급의학과	김용수 영상의학과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오동훈 정신건강의학과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정자현 정자현내과의원	강신화 수술실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원희 치과	오미경 마취통증의학과	이철범 흉부외과				
김일권 한국특수요육원	강영의 본관6층	김우길 시설팀	박은재 약제부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이충기 교육연구팀				
	강오열 고객지원팀	김운용 기획팀	박일규 진단검사의학과	오재혁 진단검사의학과	이향락 소화기센터				
	강춘희 보험심사팀	김운영 치과	박재우 고객지원팀	우춘미 보험심사팀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고란주 10층	김은철 원무팀	박정하 17층병동	원영웅 혈액종양내과	이화준 Q팀			
강장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고성호 신경과	김자혜 소아청소년과	박중국 영상의학과	유교상 소화기내과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김재민 신경외과	고아라 산부인과	김정수 피부과	박중주 7층병동	유미경 임상연구지원팀	임상혁 영상의학과				
김충현 신경외과	고재성 고아비인후과의원	김정숙 수술실	박주원 의무기록팀	유정아 영상의학과	임완에 원목실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공상훈 경영감사팀	김중현 정형외과	박지호 내과중환자실	유창성 진단검사의학과	임천식 직업환경의학과				
박종민 첼피부과의원	곽인영 광아비인후과의원	김준희 본관10층병동	박진용 시설팀	윤관식 영상의학과	임한웅 안과				
박충기 영상의학과	곽혜영 약제부	김지숙 병리과	박찬남 종합검진센터	윤성익 재활의학과	장성호 재활의학과				
손주현 소화기내과	곽학숙 7층병동	김지은 감염내과	박찬혁 소화기내과	윤여필 물류팀(의공)	장일현 재무팀				
신창록 신록내과의원	구선완 인사총무팀	김지현 약제부	박창구 시설팀(시설)	윤인숙 본관20층병동	장재신 인공지능장실				
심종걸 심종걸내과의원	국은영 응급의학과	김진녀 본관8층	박태수 정형외과	윤정화 의무기록팀	장지희 고객지원 팀				
오기영 오기영내과의원	권순찬 직업환경의학과	김진순 중앙공급실	박환철 심장내과	윤호주 호흡기내과	전미신 간호국				
오영하 병리과	김경현 진단검사의학과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박환겸 외과	은창수 소화기내과	전성분 중앙 공급실				
유대현 류마티스내과	김경화 본관11층	김태형 호흡기내과	박희정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전선희 외과계중환자실				
유준호 다습내과	김근호 신장내과	김한준 외과	방소영 류마티스내과	이경수 외과계 중환자실	전용철 내과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금옥 본관7층	김현옥 의료정보팀	백근만 운영지원국	이경식 감염관리팀	전우재 마취 통증의학과				
이진 한림대학교	김남기 재무팀	김현주 고객지원팀	백두진 해부학교실	이경희 동관7층	전현호 물류팀				
동탄성심병원	김대성 백남심장센터	김혜원 외래간호팀	백초숙 18층병동	이도희 Q실	정경희 본관 6층				
정성수 류마티스클리닉	김대호 정신건강의학과	김화선 국제행정지원팀	백희준 영양팀	이민자 신경과	정미선 원무팀				
정성수내과의원	김대희 원무팀	김학숙 약제팀	서우용 진단검사의학과	이상훈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선태 진단검사의학과				
정진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동훈 원무팀	김희규 시설팀	서정원 영상의학과	이석환 이석환 신경정신과의원	정수경 간호국				
윤여옥 태암내과의원	김명숙 간호국	남영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설인준 소아청소년과	이선이 간호국	정은아 치과				
한동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미혜 내과계중환자실	남정현 정신건강의학과	성명순 사회복지팀	이숙희 16층병동	정재호 이비인후과				
	김미희 간호국	노영식 피부과	성민철 안과	이순우 회복실	정진혁 이비인후과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김민규 외과	성정순 내과계중환자실	이슬아 11층병동	정찬호 대외홍보팀				
김경현 한양대학교의료원	김민선 영양팀	류제일 신경외과	손한숙 약제팀	이승환 이비인후과	정태순 11층병동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범석 아침이비인후과소아과	문지용 호흡기내과	송혜기 9층병동	이양섭 원무팀	정희숙 보험심사팀				
무한실천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봉건 방사선중앙학과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신순교 응급의료센터	이유경 영상의학과	조기섭 진단검사의학과				
서재관 한양대학교병원	김봉유 원무팀	문혜숙 인공지능장실	신용운 안과	이장현 상형외과	조상윤 마취통증의학과				
윤영선 한양대학교병원	김선기 영상의학과	문홍상 비뇨기과	신우중 마취통증의학과	이정민 물류팀(의공)	조성하 물류팀				
이광현 한양대학교병원	김수연 영상의학과	박기철 정형외과	신인철 약리학교실	이정일 정형외과	조아라 영양팀				
황성우 한양대학교의료원	김승국 영상의학과 MRI실	박동우 영상의학과	신정훈 심장내과	이정하 산부인과	조영완 인사총무팀				
	김승현 신경과	박미라 외과계중환자실	신화숙 19층병동	이제인 약제팀	조영진 내과중환자실				
	김영욱 신생아중환자실	박성욱 건강관리팀	심경아 11층병동	이종 교육연구팀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김영보 물류팀	박시복 관절재활의학과	심재향	이종숙 진단검사의학과	조현주 의무기록팀				
	김영호 정형외과	박예수 정형외과	양정자 원무팀	이종숙 보험심사팀	주희운 안과				
5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이종희 본관5층	주임선 시설팀				

명예의 전당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천만 원 이상)



한양호스피스회

(1천만 원 이상)



최원록

*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지은배	이비인후과	강혜숙	영양팀	김병숙	원무팀	김정안	본관7층	문정희	본관9층	배순석	수술실	
차경옥	간호국	고희경	본관10층	김보미	신경외과	김정연	본관7층	문한솔	본관 8층	배영주	10층병동	
채선자	임상연구지원팀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김봄	본관11층	김정은	본관11층	문희애	본관6층	배은희	본관11층	
채영림	재무팀	공지현	심장센터	김상미	본관10층	김정희	영양팀	민세인	본관 11층	백필선	외과	
최근배	핵의학과	곽동원	영상의학과	김상훈	약제과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민소영	본관9층	백형정	약제팀	
최도진	본관 8층	권난희	영양팀	김상희	응급의료센터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민진	신생아 중환자실	백혜연	수술실	
최미경	간호국	권도희	제3중환자실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중식	수술실	민현숙	약제팀	변다솜	본관10층	
최민영	외과	권미화	2층내과	김선영	고객지원팀	김지윤	본관11층	박경림	보험심사팀	변순현	의무기록팀	
최성일	심장내과	권보미	내과중환자실	김선영	영상의학과	김창금	영양팀	박경미	비뇨기과	서명진	주사실	
최승석	성형외과	권선미	본관6층	김선주	인공신장실	김철한	재무팀	박경아	제3중환자실	서병갑	영상의학과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권순주	본관16층	김선화	심뇌혈관집중치료실	김초롬	본관5층	박경진	본관7층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최준식	타이비인후과의원	권언희	영양팀	김상애	17층병동	김초롱	본관6층	박경희	중앙공급실	서승희	본관9층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권용덕	마취통증의학과	김성철	병리과	김춘애	영양팀	박근배	보험심사팀	서승희	중환자실	
최충혁	정형외과	권은진	치과	김성훈	영상의학과	김태근	병리과	박명경	외과	서영남	본관8층	
최혁중	응급의학과	권혁천	고객지원팀	김세정	본관11층	김태호	재활의학과	박명호	환자이송반	서영은	본관5층	
최호진	신경과	권현숙	본관5층	김소란	본관10층	김택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박미숙	영양팀	서현주	정형외과	
최홍용	비뇨기과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소연	서울 본관10층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박미순	임상연구지원팀	서호진	외과	
표주연	병리과	김경수	소화기내과	김소연	구리 본관10층	김현일	외과	박미옥	교육연구팀	설명길	의료정보팀	
하루미	수술실	김경숙	항암제조제실	김소연	본관7층	김현주	본관6층	박상혁	영양팀	성경희	본관7층	
한미경	신생아중환자실	김경실	본관5층	김소영	본관7층	김현진	재활의학과	박선아	진단검사의학과	성외순	국제행정지원팀	
한상용	신장내과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소윤	외과	김현창	물류팀	박선영	고객지원팀	성혜윤	본관8층	
한장희	참조은이비인후과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수미	내과중환자실	김현희	2층내과	박선영	피부과	손영성	본관9층	
함두식	기획팀	김금례	인공신장실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손화선	대외홍보팀	
홍경표	인사총무팀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숙미	영상의학과	김형식	약제팀	박성찬	진단검사의학과	송명선	영상의학과	
홍상모	내분비대사내과	김기석	내시경실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형주	약제팀	박소은	영양팀	송은경	진단검사의학과	
홍성권	고객지원팀	김나영	18층병동	김아름	본관5층	김혜리	17층병동	박수미	안과	송주영	2층내과	
홍은아	인사총무팀	김남희	본관11층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혜림	감염관리팀	박수정	수술실	송현수	시설팀(시설)	
홍의호	핵의학과	김다솜	약제팀	김양석	김포예사랑병원	김효준	인사총무팀	박순구	안과	송현주	15층병동	
황세진	해부학교실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양선	인공신장실	김휘원	본관5층	박연희	수술실	송환남	재활의학과	
황윤신	병리과	김도와	내시경실	김연정	재무팀	김하나	주사실	박예진	본관8층	신명희	치과	
황의경	영상의학과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연주	2층내과	나소정	수술실	박용범	원무팀	신미숙	진단검사의학과	
황의순	고객지원팀	김두리	수술실	김영미	이비인후과	나윤숙	2층 내과	박유정	본관5층	신수경	8층병동	
황인남	의료정보팀	김란	본관5층	김영선	본관5층	나인철	재활의학과	박은수	본관10층	신수지	수술실	
황인자	간호국	김령	영양팀	김영신	치과	나현영	제3중환자실	박은영	인공신장실	신윤경	본관9층	
황준상	영상의학과	김령희	부속실	김영연	외과	남궁정민	16층병동	박은형	고객지원팀	신재철	의무기록팀	
10만 원 미만		김명환	영양팀	김영일	고객지원팀	남기준	원무팀	박응범	비상계획계	신정미	영양팀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남순영	본관5층	박점현	본관11층	신정은	인공신장실	
	강다운	본관9층	김미라	성형외과	김영진	신경외과	남승혁	홍부외과	박주은	본관8층	신철우	진단검사의학과
	강문주	본관11층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영훈	물류팀	남희은	본관8층	박지경	영양팀	신현주	인공신장실
	강민서	본관6층	김미섭	영상의학과	김육원	영상의학과	노광규	고객지원팀	박지애	Q팀	신혜민	수술실
	강민아	진단검사의학과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은미	신생아중환자실	노선균	홍부외과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심규진	본관7층
	강석범	핵의학과	김미성	간호국	김은실	소아청소년과	노옥경	제3중환자실	박지혜	본관11층	심규형	영상의학과
	강성찬	외과	김미성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노옥석	본관7층	박진옥	피부과	심오라	보험심사팀
	강성훈	진단검사의학과	김미화	보험심사팀	김은지	본관10층	노창완	영상의학과	박진희	항암제조제실	심을수	영상의학과
	강신창	핵의학과	김미희	본관7층	김은희	수술실	류중백	시설팀(시설)	박춘아	수술실	안대웅	교육연구부
강영위	수술실	김민아	본관10층	김인호	약제팀	류현숙	마취통증의학과	박현정	외과계중환자실	안명현	병리과	
강윤성	의무기록팀	김민정	수술실	김지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모지은	소화기내과	박현혜	본관8층	안미경	영양팀	
강은미	본관10층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재희	영상의학과	문미영	의무기록팀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안삼순	2층내과	
강지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민정	신생아중환자실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문미영	본관8층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안석태	영상의학과	
강지연	본관6층	김민희	국제병원행정지원팀	김정례	11층병동	문상희	내과중환자실	반은주	제3중환자실	안선미	내과중환자실	
강지원	기획팀	김민희	2층내과	김정민	본관10층	문영민	영상의학과	방민주	제3중환자실	안유정	2층내과	
강해영	응급의료센터	김백수	본관7층	김정숙	고객지원팀	문재봉	시설팀(시설)	방성주	대외홍보팀	안은종	의료정보팀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안은진	내과중환자실	유정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혜정	수술실	조용희	이비인후과	하지운	원무팀
안이슬	본관10층	유주량	본관5층	이상찬	인사총무팀	이호남	고객지원팀	조은영	영상의학과	한상운	원무팀
안정미	수술실	유지학	원무팀	이새롬	본관11층	이호문	영상의학과	조인옥	진단검사의학과	한소담	본관10층
안정은	본관11층	유현영	물류팀	이서윤	본관9층	이호용	영상의학과	조지희	본관7층	한수진	본관10층
안정현	이비인후과	유현주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선영	본관6층	임경순	신경외과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한승희	수술실
안창선	물류팀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이선화	본관9층	임다현	본관10층	조현남	15층병동	한아영	본관6층
안혜옥	본관20층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이선희	고객지원팀	임미란	본관10층	조현일	시설팀(시설)	한주화	심장센터
양광식	의료정보팀	윤규리	본관10층	이성모	물류팀	임선경	본관11층	조환영	중앙공급실	한현남	영양과
양길녀	외과	윤병희	재활의학과	이성미	신경외과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주찬미	본관7층	한현수	의료정보팀
양명화	간호국	윤미영	인공신장실	이소연	신경과	임은실	산부인과	지미경	보험심사팀	한현정	정형외과
양미영	영양팀	윤미인	본관6층	이수연	시설팀(통신)	임은자	이비인후과	지은아	산부인과	함명자	보험심사팀
양수용	수술실	윤선미	영양팀	이수진	수술실	임은주	신경과	지현정	본관7층	함수미	응급의료센터
양은주	신생아중환자실	윤선애	본관6층	이숙	고객지원팀	임인자	수술실	지혜정	의료정보팀	함연순	외과
양현	교육팀	윤선희	영양팀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임인현	병동사무	진수희	응급의료센터	허성미	외과
양효선	약제팀	윤아름	본관10층	이순자	본관5층	임정연	시설팀(통신)	진춘희	영양팀	허유비	본관7층
엄기숙	영양팀	윤원경	11층병동	이승호	영상의학과	임주아	정형외과	천경희	의료정보팀	허정현	심장센터
엄평화	본관6층	윤은정	신생아중환자실	이연우	본관6층	임지상	영양팀	천다혜	간호국	허지선	본관7층
엄혜정	수술실	윤정아	외과	이연주	정형외과	임지영	영양팀	천영복	물류팀(의공)	허지영	2층내과
여미진	본관10층	윤정희	약제팀	이영미	신생아중환자실	임화영	비뇨기과	천은선	외과	허태영	진단검사의학과
여은주	본관6층	윤지선	본관6층	이영주	2층내과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최고운	본관11층	허효숙	소화기내과
여은주	20층병동	윤향순	진단검사의학과	이예린	이비인후과	장운주	약제팀	최규호	마취통증의학과	현순희	본관10층
오금복	정형외과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유리	제3중환자실	장정아	인공신장실	최다을	신생아중환자실	홍대영	인사총무팀
오기향	중앙공급실	윤현순	고객지원팀	이윤미	심장센터	전경신	성형외과	최문정	본관5층	홍민영	비뇨기과
오미란	본관7층	윤희정	인공신장실	이윤진	본관10층	전형수	대외홍보팀	최마옥	치과	홍성숙	내시경실
오미혜	정신건강의학과	윤희재	내시경실	이은경	인사총무팀	전효선	수술실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홍숙의	병동사무
오연이	영양과	이가희	응급의료센터	이은명	약제팀	정경은	본관5층	최선경	재활의학과	홍은미	내과중환자실
오영숙	고객지원팀	이강연	원무팀	이은애	본관11층	정기영	영상의학과	최선미	인공신장실	홍은자	내시경실
오유선	본관10층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은영	신장내과	정대천	고객 지원팀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황미향	영상의학과
오은주	본관6층	이경주	본관9층	이은주	보험심사팀	정신주	이비인후과	최성은	교육연구팀	황성환	교육연구부
오재훈	마취통증의학과	이경철	기획팀	이은형	본관6층	정사회	인공신장실	최세연	원무팀	황성희	본관11층
오정남	영양팀	이경하	정신건강의학과	이은희	본관5층	정수정	본관5층	최소담	영상의학과	황영순	본관5층
오정숙	본관10층	이경희	본관11층	이은희	인공신장실	정승원	상쾌한이비인후과	최순애	인공신장실	황정선	마취후회복관리실
오지현	주사실	이경희	인공신장실	이재민	마취통증의학과	정애용	심장센터	최승희	본관10층	황주희	본관6층
오진영	2층내과	이관식	인사총무팀	이정식	보험심사팀	정유정	17층병동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황준호	의료정보팀
오홍석	진료부	이규택	신경과	이정애	병리과	정은영	수술실	최영선	인공신장실	황혜연	본관10층
오화경	수술실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정은	시설팀(통신)	정은재	약제팀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황화순	시설팀(통신)
오희순	응급의료센터	이나리	본관10층	이정인	당뇨센터	정의숙	본관8층	최은영	본관8층	황희수	영상의학과
옥상열	원무팀	이나영	수술실	이정화	의무기록팀	정일웅	의료정보팀	최재범	기획팀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우순희	수술실	이도영	본관5층	이정화	신경과	정임중	응급의료센터	최정연	대외홍보팀		
우정미	고객지원팀	이도현	수술실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최정훈	안과		
원혜정	부속실	이두리	제3중환자실	이종열	치과	정정미	본관10층	최종석	영상의학과		
원홍석	인사총무팀	이두중	핵의학과	이주영	인사총무팀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최종은	보험심사팀		
위영현	약제팀	이명숙	병리과	이주현	중앙공급실	정지호	본관6층	최진실	본관5층		
유고은	본관10층	이명주	약제팀	이주현	본관6층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최창순	간호국		
유미하	물류팀	이미경	영양팀	이지현	심장센터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최현구	이식센터		
유병호	내과중환자실	이미경	보험심사팀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정혜영	본관7층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유선길	건강검진센터	이미란	본관6층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정훈	의료정보팀	최혜용	고객지원팀		
유선정	이비인후과	이미자	본관11층	이현아	본관7층	조경숙	인공신장실	최희숙	11층병동		
유숙	병리과	이미정	본관10층	이현영	본관11층	조광희	심장센터	최희영	Q팀		
유영미	내과중환자실	이미정	중앙공급실	이현주	인공신장실	조구성	영상의학과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유은희	2층내과	이민지	본관5층	이현주	원목실	조규선	영상의학과	허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유정안	중앙공급실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현중	영상의학과	조문형	원무팀	허은영	약제팀		

Hanyang Calendar

1
January

1.4 MON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 주니어오케스트라
오후 12시
본관 1층 로비



1.8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간에 대한 잘못된 상식
- 정재운 소화기내과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1.23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최신 치료
- 김승현 교수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2
February

2.1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정신건강의학과음악회
- 원요섭(색소폰연주)
오후 2시
본관 1층 로비

2.12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치매의 예방과 관리
- 최호진 신경과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2.27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사회복지 관련 정
보제공 및 심리 상담
- 성명순 사회복지사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2

■ 전화예약 : 1577 - 6382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m.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이창홍	월, 화, 수, 금	월	간질환
	최호순	수, 금, 토(3주)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2주)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 화, 목, 토(4주)	수, 금	간질환
	이항탁	금, 토(5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식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화, 토(1주)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식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김영택	수	수	일반소화기내과질환
	이강원	수, 월, 화	수	일반소화기내과질환
	곽주희	금	화, 목, 금	일반소화기내과질환
	임동휘	목, 토	월	일반소화기내과질환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하혈성신장질환, 신혈관중재술, 심장줄기세포치료,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신장내과 2290-8700	신진호	월, 수, 금, 토(4주)	수	심부전, 심혈관중재시술
	임영효	수, 금, 토(3주)	월, 목	하혈성신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일반심장질환
	박진규	월, 화, 목, 토(1,5주)	목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와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김종명	월, 화, 수, 금	화, 목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수, 목, 토(1,2주)	월, 금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화, 목, 토(3,5주)	월, 수	일반신장내과질환
	최은영	화, 목, 토(3,5주)	수	일반신장내과질환
내분비내과 내과 2290-8300	안유현	월, 화, 수, 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노후수체
	최웅환	월, 화, 수, 금, 토(1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월, 수, 목, 토(3주)	월, 화, 금	당뇨병(금·초조만), 노후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토(4,5주)	수, 목, 금	일반내분비내과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신동호	휴직	수, 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윤호주	월, 수, 토(4주)	금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손장원	월, 화, 목, 토(2주)	월	폐결핵, 폐렴, 폐암
	김상현	화, 목, 금, 토(1주)	화, 수, 금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박동원	수, 토(3,5주)	화, 수, 금	일반호흡기내과질환
	이지영	금	월	일반호흡기내과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월, 수	화, 목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종, 거핵세포질환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노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이준호	월, 화, 수	목	위암, 대장암, 식도암, 당도암, 췌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지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화, 목, 토(3주)	월, 수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오성희	목, 금	월, 화	소아간염질환
	김남수	월, 수, 토(2주)	목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구리), 금▲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 화, 수, 토(1주)	수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토(4주)	목,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목,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지혜		화	소아내분비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목,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세표치료센터 &클리닉▲	김주한	월, 수	월, 수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금(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목(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한영	수▲, 금, 토(2주)	화, 수▲	뇌졸중, 두통, 아지럼증, 경동맥협착
서관7층	김희진	해외 연수		2290-9377 김영서 화, 토(1,3주)
			월, 목, 금	뇌졸중, 두통, 아지럼증
	오기욱	월▲, 금▲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토(1,3주)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알코올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김석현	화, 금, 토(2주)	화, 금	정신의학,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오동훈	월, 목, 토(1,3주)	월, 목	노년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알코올질환
	조성진	목	화, 수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월, 목	월, 목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화, 금, 토(2,4주)	수, 목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일례르기성 피부
				질환, 결핵, 지질질환, 피부암
	김정은	월, 수, 토(1,3,5주)	화, 금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위, 십이지장질환
	권오정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토(1주)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월, 목(만도음)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하태경	월, 화	목	복강경로봇위암수술, 비대사수술, 복강경장수술
	안병규	월, 토(3주)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이주희	토(4,5주)	월, 금	일반외과질환, 복강경장장수술
				위암, 상부위장관, 복강경로봇,
	최승혁		수	외과질환 및 탈장수술, 비대사
				일반외과질환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화, 금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중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김혜선	월, 수, 금		일반흉부(폐, 중격동 및 식도)질환, 흉강경수술
정형외과 2290-8473	김태승	토	월, 목	사지근골격계종양클리닉, 소아정형외과학
	이광현	월, 수, 금	수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중혁	월,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족부클리닉, 당뇨병,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강창남	월	화, 수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화	화, 목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김이석	목	화, 목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황규태	화, 금	금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진규	목, 토	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031 - 560 - 2114 031 - 560 - 2050 1577 - 9382 031 - 560 - 208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신수술, 내시경하수체수술, 뇌신경질환,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김영수	화	화,목	다스크요통, 척추질환, 내시경신수술, 척추종양
	백광흠 이형중	월,수,목	금,화	뇌혈관질환, 혈관신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금,토(4.5주)	수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저림증(목디스크, 손목증후군, 신경손상, 두부, 목, 척추) 통증성질환, 척추종양
	한영훈 정재우	토(2.3주) 토(1주)	금,목	일반 신경외과질환
성형외과 2290-8660	안희창	수,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정태	월,금	수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윤진호 김연환	월,수,화,목,토(매주)	화,금,화,목	비만성형,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인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고), 알성형, 피부종양, 피부인체교정, 욕창
	황정혜	화,수,목,금	월,화	일반신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험관이끼
	최중섭	월,수	수,금	일반신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산부인과 2290-8400	최정규	월,화,목,토(2주)	화,목	일반신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목,토(3주)	월,목	일반신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목,오전: 여성재건)
	이원무	화,목,금,토(4주)	화	일반신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수,오전: 로봇클리닉)
	엄정민	수,금	월	노내장, 백내장
	안기량 이병로 송인석 안한웅 이주향	월,수,화,목,토(3주) 금,토(1.3주) 금 토(2.4주)	금,목,화,수,월,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일반안질환, 외안부, 각막, 콘택트렌즈, 백내장,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안성형, 눈물샘, 미숙아망막, 사시, 기타안과질환
이비인후과 2290-8680	박철원 김경래	화,금,토(3주) 목,토(2주)	화,월,목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인면신경마비,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화,토(1주)	화,금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민	목,토(4주)	월,목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성의숙	월,금,토(5주)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비뇨기과 2290-8693	이건중	수	수	일반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1주에비뇨기과전체휴진			
	이춘용	월,토(5주)	화,목	비뇨기종양,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박해정 김용태 박성열	수,금,토(2주) 화,목,토(4주) 수,목	월,수,금,월	신장이식및난임과,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배뇨장애, 요로감염,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결석, 전립선, 신장암, 방광암, 복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이호원	월,화,토(1.3주)	금	전립선질환, 신결석, 배뇨장애, 방광암, 일반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김태근	월,수,금,토(4주) 화,목,토(1.5주)	월,수,화,목(1.3주),금	소아재활, 근골격계질환,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골격계질환, 뇌신경재활, 척추손상재활
		월▲		루기리클리닉(사관7층,세브라센터)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희정 박혜진	월~금 월~금	월~금 월~금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김지영	토(1,3주)	수,월	갑상선,동위원소치료,일반진료
	차과 2290-8671	이영수 황경균	목,금,월,화,목	임플란트, 원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턱알골상향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한지영 김태진 전재운	월,수,목,월~금,월,화,수,금	턱알골상향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료,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보철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김주형 심명섭	월,화,목,월,화,금	악교정수술,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구강내소수술, 사랑니, 발치
		김주형 심명섭	월,화,목,월,화,금	악교정, 설측교정, 금속교정, 수술교정, 턱알골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김용주 하태경	월,수,목,화,금	목,금,월,화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수,금,토(2주) 월,화,목,토(4주)	월,화,수	스포츠의학 간강중진의학, 노인의학 간강중진의학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송재철 이수진	월,화(2.4주),목,화(3.5주),수,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전식, 근골격계질환, 사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화,목,토(3주) 월,수,목,토(5주) 화,수,금,토(2주) 화,목,토(2주)	화,수,목,금,월,화,목	류마티스 · 골관절염, 성인형소뇌병, 근염
	배상철 전재범 김태환	월,수,목,토(5주) 화,수,금,토(2주) 화,목,토(2주)	월,목,금,목,금,월,화,목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성윤경 최찬범	월,화,수,금,토(3주) 월,수,금,토(3주)	수,금,수,금	류마티스 · 골관절염, 류푸스강직성척추염, 퇴행성관절염
	조수경 이 승	월,수,목,금,토(3주) 화	월,수	류마티스 · 골관절염, 류푸스강직성척추염, 퇴행성관절염, 류푸스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렐병
	손일웅	월,토(2주)	목	류마티스 · 골관절염, 류푸스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렐병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송승택	수,금,토(5주)		류마티스 · 골관절염, 류푸스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렐병
	이성원	목,토(3주)	월	류마티스 · 골관절염, 류푸스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렐병
	정혜진	토(1.4주)	화,금	류마티스 · 골관절염, 류푸스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렐병
	박시복 이규훈	수,금,토(3주) 월,화,목,토(3주)	월,수,화,목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계질환
	심재철	월,수,목,금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최충혁		월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 · 관절외과 2290-9216			
	이봉근 이진규	목,화		슬관절클리닉(관절염,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사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AFS)	윤호주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김정현	화,수,금,월,화,목,금	월,화,수,화,수,월,목,금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스포츠의학 간강중진의학, 노인의학 가정의학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배현주	수	수	간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월,목,화,금	수,금,목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인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고), 알성형, 피부종양, 피부인체교정, 욕창

* 2016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560-2219	손주현 한동수 전용철 은창수 유교상 박찬혁 장재운 송준석 최원석 김원중	화,월,목,수,금,월,수,목,목,토(1.35주),수,목	월,목,화,수,월,목,수,금,화,금,목,화,월	간종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대장질환(내성궤양성,대장질환),소화기,위장관질환,소화기,위장관질환,담도,췌장질환,소화기질환,소화기,위장관질환,식도암,위암,간질환,소화기,소화기
	심장내과 560-2220	김순길 최상일 박현철 신정훈	월,화,금,목,수,목,토(1.3주),토(2.4주)	인상선종학, 고혈압, 허혈성심질환,고혈압,허혈성심질환,고혈압,부정맥질환,고혈압,허혈성심질환
	신장내과 560-2220	한상웅	월,화,금	만성콩팥병, 당뇨병,콩팥병증,고혈압,사구체신염,투석요법
		이주학 이은영	수,목,토(12.3주),토(4.5주)	인상선종학, 만성콩팥병,고혈압,만성콩팥병,고혈압,사구체신염
	내분비내과 560-2220	박용수 이창범 홍상모	월,금,토(3.4주),수,목,토(1.2주),월,화,토(5주)	당뇨병,갑상선질환,골다공증,당뇨병,갑상선질환,비만증,당뇨병,갑상선,골다공증,알코올내분비
류마티스내과 560-2220	이혜순	월,수,토(1.3주)	화,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방소영	화,목,금,토(2.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김태형 문지용	월,수,목,토(1.3주),화,금,토(2.4주)	화,수,월,목	만성폐쇄성질환, 천식,결핵,폐암, 중환자관리, 만성질환, 호흡근력, 천식, COPD, 결핵, 폐암
	혈액종양내과 560-2220	최장혜 원영웅	화,목,토(2.4주),월,수,금,토(1.3주)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560-2220	김지은	목,토(2.4주)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560-2250	김창렬 오재원 문진화 이영호 김남수 김자혜 최영진	화,수,금,토(5주),화,목,토(2주),월,수,금,토(3.3주),월,수,금,토(4.4주),월,목,토(1.1주)	화,월,목,월,수,수,목,금,화,목,금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소아신경, 소아알레르기, 소아심장, 소아내분비, 성장, 소아호흡기
	신경과 560-2260	이영주	화,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고성호 최호진	월,수,목,월,수,목,월,화,목,토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허혈성중풍, 손저림,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두통
	정신건강 의학과 560-2270	박용천 김대호 최준호	월,화,토(3.매),목,화,목,토(3.주),월,수,금,토(2.4주)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수화클리닉, PTSD, 불안장애, BMDR
	신경외과 560-2320	김충현 김재민	월,금,토(2.2주),수,목,토(4.4주)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흉부외과 560-2300	정찬환 류제일 김현우	월,토(1.1주),화,수,토(5.5주),토(3.3주)	화,목,금,월,수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신수술,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술), 척추종양, 두부외상, 두부외상, 척추외상, 척추질환
	이철범 노선균 남승혁	월,목,화,수,금	월,화,목,수,금	폐질환, 식도질환, 흉부외상, 신장질환, 대동맥 및 혈관질환, 폐질환, 다한증, 흉강경수술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장형외과 560-2310	김영호 박태수 박예수 김종현	월,수,금,화,목,수,금,토(4주),목,토(2.2주)	수,월,목,월,화,수	인공관절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스포츠의학,관절,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이정일	화,토(1.1주),월,토(5.5주)	목,금,화,금	무릎관절염, 스포츠손상(인공관절, 관절경수술),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산부인과 560-2340	김승룡 이정환 고아라	수,월,목,금,화	복강경수술, 불임, 부인종양,일반부인과질환,산모,고혈압,복경수술,자궁근종,난소종양,복강경수술,부인종양,부인암(자궁경부,난소,자궁내막)
	성형외과 560-2330	최승석 이장현 류재만 장정우	월,금,화,목,토,수	말초신경및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악안면 및 미용성형,일반성형외과진료,일반성형외과진료
	외과 560-2290	남영수 이홍기 박환경 김한준 김민규 최만영 윤정아 김현일	월,수,월,수,금,토(3.3주),목,화,금,토(4.4주),금,목,토(2.2주),토(1.1주)	대장항문병, 유방암, 갑상선질환,혈관(동맥, 경맥, 당뇨병), 이식, 간담체외과,간담체질환,복강경수술,간담체질환
안과 560-2350	조화윤	화,목	목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장제술, 탈장, 유방, 갑상선질환, 대장항문병
	성민철 강민호 임한웅 신용운	수,금,월,토(2.4주),수,토(1.35주),월,금,토(2.4주)	월,수,화,금,화,목,금,월,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장제술, 탈장,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병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피부과 560-2280	유희준 김정수 이정우	월,화,금,수,목,토,화	무좀 및 조각백선, 피부알레르기 질환, 피부마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일반피부질환, 피부마용
이비인후과 560-2360	이승환 정진혁	월,수,화	목,화,금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러움증, 인공와우이식, 부비동염, 비중격 및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정재호 조용희	월,수,목,토,화,금	수,월,수,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어지러움증, 난청, 이명, 중이염, 부비동내시경, 비중격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일반 및 소아이비인후과
	유한석	금	월,화,목	소아 및 일반이비인후과
비뇨기과 560-2370	최홍용 문홍상	화,목,수,토(5.5주)	목,월,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김규식	월,금,토(1.1주),토(2.3.4주)	화,화,금	복강경수술, 종양, 남성과학, 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560-2380	장성호 조형필	월,금,화,목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만성통증 및 근골격계질환, 뇌신경재활, 척추손상재활, 스포츠의학
	맞춤클리닉▲			
치과 560-2660	박원희	월,화,수,목,토(2.4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마백, 턱관절질환
	김윤영 심재향	화,금,토(3.5주),월,수,금	월,화,목,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마백,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통증클리닉 560-2085			
	핵의학과 560-2730	김영환	화	종양핵의학

* 2016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신한플라자 의과대학 연구센터 증축

의료와 교육, 연구를 담당하는 시설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동관 ‘신한플라자’가 증축을 마쳤습니다. 신축된 4층과 5층, 옥외에는 의과대학 연구센터, 류마티스병원 연구센터, 옥상정원과 중환자 보호대기실이 들어섭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대학병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한양대학교병원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